

문화유산을
이야기하다, 담다

문화유산담

VOL. 05 | AUTUMN 2023
QUARTERLY MAGAZINE

Contents

Part. 01

시론

2024년 5월 17일부터는 ‘문화재’란 말이 사라집니다 03

Part. 02

오래된 문화유산의 기억

문화재수리현장 속 주인공을 찾습니다 05

Part. 03

협회소식

전통건축부재보존센터 개관식 참여 09

Part. 04

법령정보

경영상태 평균비율 변경적용

문화재수리 표준품셈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표준시방서 일부개정 11

「국가유산기본법」 제정과 관계 법령 12

Part. 05

문화유산 수리의 역사

한국 문화재수리의 대가, 전방진 15

Part. 06

잊혀진 사라진 것들

원주, 아카데미극장 라스트 찬스 21

Part. 07

문화유산 연구 및 조사

조선시대 봉수대의 이해와 앞으로의 과제 28

Part. 08

문화유산 특별기고

엘긴경의 대리석상 43

쇼베동굴(Grotte Chauvet-Pont d’Arc)의 보존 46

Part. 09

문화유산 수리 이야기

사라진 왕실 공예물의 제자리 찾기는 반환보다는 ... 51

Part. 10

문화유산 산책

새그무레한 배롱꽃이 한창인, 안동 병산서원 56

Part. 11

문화유산 수리 현장 공개

3년 만에 다시 열리는 문화유산 수리 현장 60

Part. 12

문화유산 서가

전통 과학 건축-빛깔있는 책들 176 61

Part. 13

업계동향

문화유산 수리분야 최신 간행물 62

문화재수리업자등 지역별 등록현황 63

문화유산

문화유산을

이야기하다, 담다



문화유산 담

발행일 2023.9.22. 발행인 여인환 발행처 문화재수리협회 편집위원 강석목 박동수 류재선 한승 편집 이태우 이서하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43 로얄타워 7층 전화 02 584 1866

홈페이지 kcpa.or.kr 이메일 kcpa@naver.com 기획·디자인 감커뮤니티 02 6713 0999

* 외부 필자에 의해 수록된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문화재수리협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Part. 01

시론

2024년 5월 17일부터는 ‘문화재’란 말이 사라집니다. | 03

시론

2024년 5월 17일부터는 ‘문화재’란 말이 사라집니다



문화재수리협회장 여인환

2024년 5월 17일부터는 ‘문화재’란 말이 사라집니다. ‘문화재’는 ‘국가유산’으로 명칭이 바뀌고 ‘문화재수리협회’는 ‘국가유산수리협회’로, ‘문화재수리기술자’는 ‘국가유산수리기술자’로, ‘문화재수리기능자’는 ‘국가유산수리기능자’로 그 명칭이 변경됩니다. 문화재 보존과 수리에 관한 국제적 동향과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최근 문화재 정책의 패러다임이 원형 유지에서 가치의 보존과 확산으로 전환되고, 문화재 수리 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하여 다방면에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문화재 수리 업계도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지난 8월 8일,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국회를 통과하였고, 내년 5월 17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문화재청은 1997년에 제정된 「문화유산현장」을 다양한 가치의 균형과 시대정신이 반영될 수 있도록 새롭게 개정하였다. 세계유산 분류 체계에 맞춰 문화재를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분류하고 재정립하는 국가유산 체제를 도입하고, 이를 위해 「국가유산기본법」 제정과 이와 관련된 법률이 개정되어 국회를 통과 하였거나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수리를 둘러싼 체계와 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지금, 문화재수리 관련 단체나 종사자들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다고 하나, 국가유산 체계와 용어 변경에 지나지 않습니다. 문화재수리 관련 법령 정비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그간 협회에서는 수리 환경 변화에 준비하고 대응해 왔으며, 앞으로도 적극 대응 할 것입니다. 수리업의 종류, 기술 요건, 업역 보호 및 확대, 근대유산의 보존 등 수리 체계 확대와 변화에 맞춰 합리적이며 시행착오 없는 안을 만들고, 대안을 마련하여 변화에 대응하고 현실에 맞는 수리 체계를 구축하는데 전력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협회에서도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이 중요한 시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아울러 회원 및 관계자 여러분도 애정 어린 의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위치와 가치는 우리 스스로가 만들며 우리의 미래는 우리 스스로가 결정합니다.

Part. 02

오래된 문화유산의 기억



문화재수리현장 속 주인공을 찾습니다 | 05

오래된 문화유산의 기억

문화재 수리현장 속 주인공을 찾습니다.

문화유산 현장에서의 추억이 담긴 옛 사진과 자료들을 함께 공유하고 기록하는 과정을 <문화유산 담>을 보시는 분들과 함께하고자 합니다. 이번 호에서는 “문화유산 수리의 역사”에서 인터뷰해주신 전방진선생님께서 제공해주신 옛 추억이 담긴 사진들을 소개합니다.

문화유산 수리현장의 옛 사진이나 자료 등을 소장하고 계신다면 협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추억을 나누어 보고자 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문화재수리협회 : kcpra@naver.com



백두산을 동반하신 이호석, 전방진, 정철호 선생



1990년 중국 서안에서 이일선 선생과 전방진 선생



1990년 중국에서 북한 여성과 함께



임종업 선생과 함께



1990.7.25.-8.5 중국문화유적답사- 문화재수리기술자협회, 백두산 천지

Part. 03

협회소식

협회소식

전통건축부재보존센터 개관식 참여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은 8월 1일, 파주시 탄현면 통일동산관광특구 내 '전통건축부재보존센터 전시관'을 개관식을 진행하였다.

2017년 12월 준공된 '전통건축부재보존센터'는 건축 문화재에서 나오는 각종 부재(部材)와 재료의 체계적 수집·보존 및 조사·연구·전시를 하는 곳이며, 전시관은 총 4개로 조성되어 일반에 공개를 시작하였다.

• 전시관 에이(A)에는 기둥(화암사 극락전2본, 법주사 대웅보전 2본) • 전시관 비(B)는 목주재와 해인사 장경판전 암막새 • 전시관 씨(C)에는 승례문 탄화부재 활용 상층구조부 재현 전시물 • 전시관 디(D)에는 승례문 및 경복궁(근정전)에 사용된 철물이 전시되어 있다.



전시를 둘러보는 (왼쪽) 문화재수리협회장 (가운데) 문화재청장 (오른쪽) 파주시장

Part. 04

법령정보

- 경영상태 평균비율 변경적용
- 문화재수리 표준품셈 일부개정
- 문화재수리 표준시방서 일부개정 | 11
- 「국가유산기본법」 제정과 관계 법령 | 12

경영상태 평균비율
변경적용

(조달청 공고 제2023-230호)

- 적용일 : 2023년 7월 1일
- 유동비율 263.89%
- 부채비율 68.99%

문화재수리 표준품셈
일부개정

(문화재청 고시 제2023-74호)

- 시행일자 : 2023년 6월 21일

공종	항목	변동사항
지붕공사	산자역기 수행주체	• 한식목공→한식미장공 • 한식목공조공-한식미장조공
	진새치기	• 신설
미장공사	화방벽 해체 및 설치	• 항목신설

문화재수리 표준시방서
일부개정

(문화재청 고시 제2023-76호)

- 시행일자 : 2023년 6월 21일
- 주요내용
 - 보토다짐과 강회다짐(생석회다짐으로 표기 변경) 항목 분리 적용
 - 미장공사에서 화방벽 해체 및 시공항목 신설

공종	항목	변동사항
지붕공사	보토, 강회다짐	• 보토다짐과 생석회다짐 (명칭변경)으로 분리적용
미장공사	화방벽 해체 및 시공	• 신설

2024년 5월 17일, 새로운 국가유산 체제가 시작됩니다.

문화재청이 지난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래 변화된 문화재 정책 환경을 반영하고 유네스코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국가유산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추진한 「국가유산기본법」이 지난 5월 16일 제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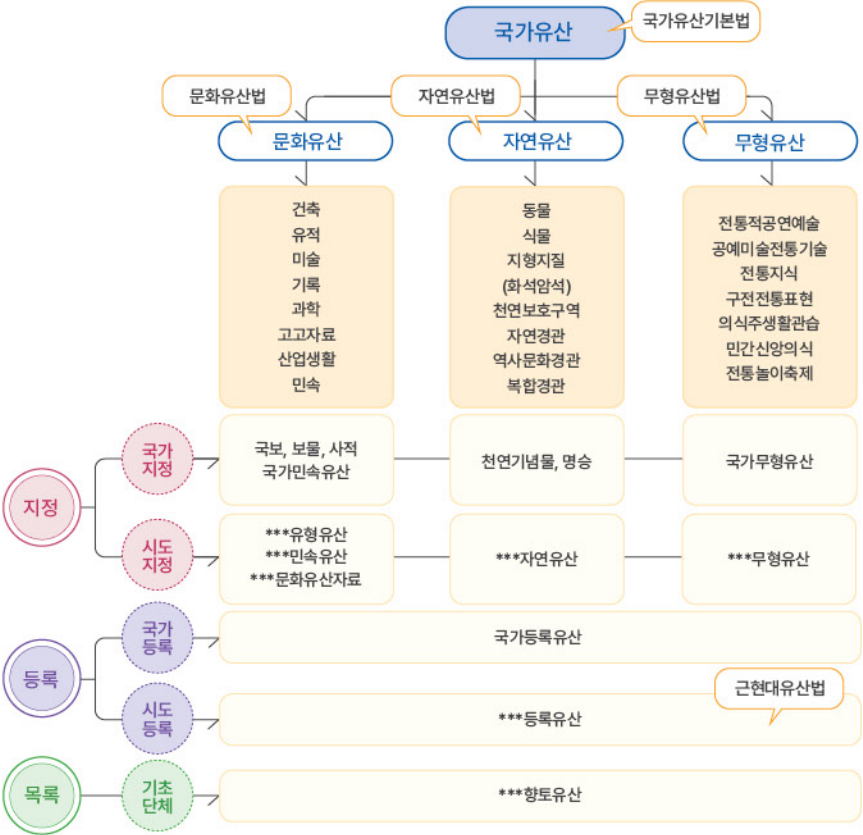
* 시행일 :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국가유산기본법」의 제정은

- ▲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財)를 과거·현재·미래를 아우르는 ‘유산(遺産)’으로 명칭을 변경 확장하고,
- ▲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세부 분류해 국제기준인 유네스코 체계와 부합하도록 하고,
- ▲ 이를 통틀어 ‘국가유산’이란 용어를 채택하여 문화재 체제를 국가유산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됨

주요 내용

- 국가유산을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으로 구분함
- 국가유산의 가치를 지키고 전승함과 동시에 적극적인 공개 및 활용을 통해 국민이 참여·향유 하도록 함
- 국가유산 전문인력 양성 및 공동체 육성 기반 조성 지원정책 추진
- 비지정·미등록 국가유산 현황 관리 및 선제적 보호·관리에 노력
- 기후변화에 따른 국가유산 관리
- 국가유산 관련 향유 프로그램 등 제공
- 기술도입으로 국가유산 데이터 생산·수집 및 관리
- 국가유산 산업 장려 및 일자리 창출 촉진
- 유네스코 세계유산, 인류무형문화유산, 세계기록유산 등재 국가유산의 보존 및 홍보
- 국가유산의 날 지정 (매년 12월 9일)



관계법령개정사항

법제명 개정전	법제명 개정후	공포일 등	시행일
(제정)	국가유산기본법	2023.5.16	2024.5.17
문화재보호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무형유산의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2023.08.08	2024.5.17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호기금법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제정)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2023.3.21	2024.03.22
(제정)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2023.8.24 (본회 가결)	-

* 기타 관계 법 5개(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는 ‘문화재’ 용어 일괄 변경됨

문화재청 추진사항

• 시행일자 : 2023년 6월 21일

- 지난 6월 30일, 제1차 국가유산 정책토론회를 시작으로 8월 8일 2차 토론회가 개최되었고, 11월까지 총 5회 개최 예정

• 국가유산정책기획단 운영

- 「국가유산기본법」 하위법령 제정 추진
-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각종 정책 대응, 대국민 홍보, 명칭 변경에 따른 각종 행정 후속 조치 등

문화재수리협회는 앞으로 “국가유산수리협회”로서, 국가유산 체계로의 전환에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Part. 05

문화유산 수리의 역사

한국 문화재수리의 대가

전방진 한국문화재수리기술자협회 창립자, (전)세이프건설(주)대표이사 / 전방진 대기술자

한국 문화재 역사의 산 증인이신 전방진 선생님은 문화재 수리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선배님으로 꼽히시는 분으로 문화재의 가장 큰 원로이시다. 전국 방방곡곡 손 안 댄 문화재가 없을 정도로 많은 문화재를 수리하신 전방진 선생님은 문화재 수리업 종사자들을 통합하기 위해서도 애를 쓰셨다.

선생님은 한양사를 시작으로 풍림건설, 다시 한양사를 오가시며 건축과 함께 문화재 수리에 자연스럽게 발을 들이기 시작하셨다고 한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문화재 수리업에 자부심과 애정이 생겨 문화재 수리업에 청춘을 바치신 전방진 선생님을 만나보았다.



인터뷰 중이신 전방진 선생

- 경기도 포천 출생(1942년 02월 24일)
-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 제일종합건설(주) 전무이사
- 삼대건설(주) 부사장
- 가보건설(주) 대표이사
- (현) 세이프건설(주) 대표이사
- (현) 경희대학교 총동문회 이사
- (현) 동남장학회 이사장
- 1986 경기도 포천군수 감사패
- 1990 한국문화재보존진흥협회 공로패
- 1992 경희대학교 경희인상 수상
- 1997 대한체육회장, 국기원장 감사패 수상
- 1997 경기도 양주군수 감사패 수상
- 2005 포천문화원장 감사패 수상



창경원 대온실 전경 1909년 11월1일 일반공개가 시작된 식물원 대온실 전경 사진엽서 ¹⁾

가장 기억에 남는 문화재 수리는 ‘창경궁 대온실 공사’

수많은 문화재 수리를 하셨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공사가 무엇이었는지 여쭙보았다. 전방진 선생은 강화향교 대성전 보수공사, 국방유적 광성포대 복원공사, 성공회 강화성당 보수공사, 삼량성 보수공사, 국민대학교 명원민속관 보수공사, 화담사 동재 복원공사, 구룡사 육화당 복원공사, 통도사 대웅전 및 금강계단 정비공사, 포천시민대중 반월각 신축공사, 용인향교 대성전 보수공사, 청곡사유물전시관 신축공사, 전계대원군묘역주변 정비공사 등 규모가 큰 문화재 공사뿐 아니라 선생의 손을 거치지 않은 문화재가 없을 정도로 서울시 대부분의 문화재 수리를 하셨다. 선생께서는 이 중에서도 문화재에 전념하게 된 시작이 창경궁 대온실 공사라고 말씀하셨다.

창경궁 대온실은 1909년 건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온실로, 주철골구조와 목조가 혼합된 구조체에 외피를 유리로 둘러싼 형태를 갖고 있다. 대온실은 창경궁의 연못인 춘당지 뒤편에 위치하고 있는데, 커다란 유리 온실이 한국 전통 건축물과 대비되어 색다른 풍경을 조성하고 있다. 1950년 6.25 전쟁 이후 창경원은 폐원했고, 대온실은 폭격으로 인해 일부 훼손이 되었다. 전쟁이 끝난 후 정부에서는 3번에 걸쳐 수리를 하였고, 1969년에는 대온실 복축에 돔 지붕을 한 현대식 온실 2동을 지었다. 전방진 선생은 이 공사에 참여하셨다.

“그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기계도 잘 갖춰져 있지도 않았어. 하나하나 손으로 해야 하는데, 기둥이 다 제각각이라 그거 본뜨는 데에도 애를 먹었다고. 그때는 문공부(문화공보부)가 생기기도 전이었어. 그래서 구황실의 예산으로 그게 증축이 된거야.” 선생께서는 공사의 기억을 더듬으며 말씀하셨다.

이젠 선명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공사를 했던 장소를 지나가다 보면 그때의 기억이 하나씩 떠오른다고 하셨다. 선정릉 보수공사를 하던 시기를 말씀하실 땐 옛날의 추억에 젖어 말씀하셨다. “말죽거리를 지나서 오른쪽으로 가면 밥집이나 술집이 많았다고. 거기서 일 끝내고 같이 먹고 뭐 그랬어. 지금은 다신 볼 수 없지만 거기만 가면 그런 추억들이 생각나지.”

“화장실 하나, 담벼락 하나 그런 사소한 것들도 맡아서 하면서 점점 내 입지가 커지고 실력이 늘었어. 그러다 보니 전국에서 내로 라하는 놈들은 다 떨어진 입찰에서도 내가 붙고 그랬지.” 문화재를 보수하면서 전방진선생은 항상 문화재를 재건한다는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공사를 하셨다고 한다. 하시는 말씀에서 문화재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이 느껴졌다.



기술자협회 총회 4대 정복영 회장 재임시
2대 회장 오세백, 3대 회장 유승번, 4대 회장 정복영, 사회에 전방진 선생(왼쪽 2번째부터 오른쪽으로)

한국문화재수리기술진흥협회 설립

전방진 선생의 업적 중 하나는 한국문화재수리기술진흥협회(현, 문화재수리기술자협회) 창립이다. “여기저기 문화재 기술자들이 흩어져 있는 거야. 체계를 세워야 했어. 그래서 다들 한데 모이라고 한 거지.” 선생의 말씀에 따르면 문화재 수리업을 시작하실 때 3개의 업체만 있었다고 한다. 그 업체들이 늘어나다 보니 각 지역에서 만 유명해지고 업체 간 교류없이 작업을 하면서 체계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셨다. 그래서 전국의 문화재수리기술자를 통합할 수 있는 한국문화재수리기술진흥협회를 만들게 되었다고 한다. 문화재수리기술자들의 권익을 세우기 위해 애쓰신 전방진 선생의 많은 노력이 느껴졌다. 그리고 협회에 계시면서 중국과 수교도 하기 전에 중국을 방문하시는 등 해외와 여러 곳을 다니시며 문화재 수리의 견문을 넓히기 위해 여러 시도를 하셨다. “돈이 생기는 족족 외국에 나가서 여기저기를 탐방했어. 프랑스도 가보고, 터키 같은 곳은 두 번, 세 번씩 가보고, 그리고 백두산도 사람들이랑 같이 갔지. 다들 업계에서 내로라하는 사람들이었어.” 한국문화재수리기술진흥협회가 자리를 잡도록하기 위해 선생께서는 여기저기서 자본을 모아 협회를 이끄는데 집중하셨다. “내 주머니로 들어간 건 하나도 없지만 그래도 직원들 월급 한 번 밀린 적이 없어. 김좌진 장군 후손한테도 후원을 받고, 방송국들에게도 후원을 받아 협회를 이끌고 체계를 세우기 위해 노력했지.”

1988년 사단법인 한국문화재보존기술진흥협회를 창립하고 상임부회장으로 취임해 1995년 3월까지 활동을 하셨다. 1990년부터 92년까지 한국방송광고공사로부터 공익자금 유치를 받기도 하셨다.

1) 서울역사박물관(서울역사아카이브) 출처

한국 문화재수리의 대가

전방진 한국문화재수리기술자협회 창립자, (전)세미프린셀(주)대표이사 / 전방진 대기술자

또한, 문화재수리 기술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들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1990년 <한국고전건축 특별강좌>, <특별좌담회:“경주관광과 문화재원형복원”>, <특별좌담회:“문화재보수공사의 질적향상을 위한 제문제”>, <한국고전건축 특별강좌>, <일본 고대건축학자 초청강연회>, <문화재 보수기술교육 특별강좌>, 1991년 <특별좌담회: “문화재보수공사의 질적향상을 위한 제문제”>, <외국인학자 초청강연회:중국과학원 자연과학사연구소 장어환>, <특별좌담회: “문화재보수공사 표준품셈 문제점 및 개선방향”>, 1992년 <한국고건축 특별강좌>, <외국인학자 초청강연회:대만 문화대학교 이견량> 등 셀 수 없이 많은 강연을 개최하고, <문화재인명록>, <단청모시집>, <한국건축사총서 II: “임진왜란 이후의 조영활동에 관한 연구”>, <한국건축사총서 III: “한국문화재보존고”>와 같은 책자를 발간하였다.

한국문화재보존기술진흥협회 상임이사로 재직할 당시 주주한 문화재공사들은 누구나 들으면 알만한 것들이 많다. 부산 용궁사 보수공사, 강화전적지, 명성황후 생가, 남한산성 성곽 보수, 제주도 성읍 민속마을, 포천 반월성, 남양주 다산 정약용 선생 사당 건립 등이 있다. 모두 역사적 의미가 깊은 문화재로 협회는 한국의 문화재를 위해 활발한 활동을 했다.



문화재수리기술자협회 중국(백두산)답사 사진
왼쪽부터 뒷줄: 정중화, 정복영, 김창준, 신원수, 이종호, 정철호, 이용목, 이호석
앞줄: 신응수, 안상열, 손영식, 이종찬, 김영일, 전방진

후배들에게 당부의 말

인터뷰는 고양시에 소재한 (주)현영종합건설에서 진행이 되었는데, 고양시에 오니 감회가 새롭다고 하셨다. “옛날에 고양시 여기에 행주산성 입찰 을 때는 길이 내 손바닥 안에 있었다고, 그리고 그땐 다들 어떻게 해야 할지 내 볼펜 끝만 보고 있었어. 근데 세월도 많이 바뀌고 발전을 많이 해서 이제 길을 잘 모르겠어. 지나가다 보면 알겠는데, 또 이렇게 보면 모르겠더라고.” 많은 문화재 원로들이 작고하시면서 점점 더 문화재 수리의 역사에 대해 들을 기회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전방진 선생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포천 옥병서원 발굴현장: 왼쪽에서 세 번째 전방진 선생

“그때 당시엔 문화재와 일반 건축이 나누어지지도 않았을 시절이라 같이 많이 했었어. 그래서 건축기사자격만 취득하고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은 굳이 생각도 안했어. 이미 나는 그전부터 하고 있었거든. 그런데 세상이 바뀌면서 자격증이 필요해 지는데 그제서야 자격증을 따기에는 좀 늦었더라고. 그게 제일 아쉬워. 그걸 그때 같이 했어야 했는데...”
문화재 수리 역사의 산증인인 전방진 선생을 만나 뵈면서 이렇게 많은 문화재의 재건에 힘쓰시고, 후배 양성과 문화재수리 기술자들을 위해 노력하시면서도 정작 나서지 않고 뒤에서 자신보단 다른 이들에게 애를 쓰셨기에 선생의 자료가 많이 남아있지 않은 것이 안타까웠다. 하지만 이렇게 문화재를 위해 애쓰신 전방진 선생이 계시기 때문에 문화재 수리업이 더욱 견고해지고 증진할 수 있었다는 건 변치 않는 사실이다.

끝으로 하실 말씀이 있는지 여쭙보았다.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문화재를 수리하고 공사하는 것, 사소한 것에도 소명감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서로 단합하며 미래를 잘 이끌어 갔으면 해. 나는 알아봐 주지 않아도, 문화재를 다룬다는 건 남다른 일을 하는 거잖아. 그것을 크게 생각하고 임했으면 좋겠어.”



필리핀 산티아고 요세- 문화재수리기술자협회
뒷줄: 김근수, 윤덕희, 이광훈, 손종석, 윤주동, 김도열 선생
앞줄: 김준웅, (), 이평우, 이용운, 양영호, 전방진, 김수일 선생

Part. 06

잊혀진 사라진 것들

원주, 아카데미극장 라스트 찬스

이제 우리에게는 이런 극장도 없다 우리근대건축연구소, 목원대학교 명예교수 김정동

‘영화나 한 편 보자’

오래된 극장이 또 수난당하고 있다. 이 글을 쓰는 동안에도 계속 뉴스가 흘러나온다. ‘낮은 건물에 칼질하지 말라’ 건축물도 시사 뉴스가 된다. 시민단체, 국회... 연락이 온다. ‘헬프(Help) 극장’이다. ‘극장 철거 확정, 이달 안에 철거기로’ 살풍경(殺風景)의 모습이다. 정권이, 즉 당이 바뀌면 건물도 파리 목숨이다. 지방 의회, 건축위원회가 통과의례에 한 역 했다.¹⁾ 오랜 기간 논의되던 극장 존치안이 별 의미 없게 되었다.

작은 규모의 아카데미극장은 1960년대 이후 원주 구도심의 랜드마크였다. 영화, 쇼 공연, 연극 그리고 길기대회, 졸업식 등이 열리는 복합문화공간이었다. 타 도시의 것과 다르지 않았다. 원주에는 4개의 극장과 군인극장(Military Theater)이 나뉘어 성업했다.

군인극장은 필자도 중학생 무렵 가본 기억이 있다. 학교에서 집단으로 모르는 군인 아저씨들께 위문편지를 보내던 시절이었다. 더구나 친척이 원주에서 초급 장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어느 여름 방학 때 갔었다. 전쟁은 끝나고 휴전이 되었다. 미군과 우리 군 장병들은 그곳에서 자주 시간을 보냈다. 군인극장은 아쉽게 문을 닫았다(1956~96). 지금 있으면 전국 유일한 것이었는데... 2006년부터는 나머지 극장들도 폐업하기 시작했다. 팔리거나 철거된 것이다. 원주의 시네마 천국은 문을 닫았다.

근대사 시기, 1930년 건축 사학자들은 상점, 백화점, 영화관 그리고 유곽을 ‘노는 건물’이라 칭했다. 반면 종교건물은 ‘성스러운 건물’이라 했다. 그래서 성유(聖遊)건물이란 장르가 생겨났다. 관청, 학교, 종교시설들이 타의적 건물이라 하면 전자는 자의적 건물이므로 사람들의 눈길이 닿아야 했다. 파사드에는 간판이 더해져 도심 풍경을 복돋웠다. 더구나 밤에는 네온사인, 일루미네이션으로 빛을 더했다. ‘영화나 한 편 보자’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왔다. 그래서 극장은 길 찾기, 집 찾기 1순위였다. 지금도 지방에서는 마찬가지일 것이다.

한때 원주시는 아카데미극장을 매입했다. 땅과 건물을 산 것이다. 바람직한 길로 잘 가고 있다고 생각했다.²⁾ 그런데 우리는 지금 다시 처음 단계로 와 있다. 이웃하던 문화극장이 철거되며 같은 운명에 처할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 2015년 초 원주 아카데미극장 살리기 운동이 시작되었다. 8년 전의 일이다. 이제 10년을 채울 모양이다. 전국 최장기 존치 운동이다.



1. 명벌에 무보수 봉사. 우리가 초기 등록문화재 제도를 만들어 시행할 때, 거의 모든 경우, 등록 반대가 일어났다. ‘아카데미극장, 등록문화재 해 달라’, 나라는 참 좋은 시절 만난 것이다. (피켓들은 분별 제공, 2023.7.26)

1) 본회의(2023.5.3.)에서 아카데미극장 철거 계획 표결에서 철거 찬성 13표, 반대 11표로 가결되었다. 2표 차이는 무엇인가? 의회가 건축을 철거를 의안으로 삼아 표결한다는 것이 의아하다. 얼마 전 청주시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졌다. 흉내 내는 것이다.
2) 아카데미극장이 있는 곳은 원주의 C 도로라고 불리는 곳이다. 큰 대로변이 3개라 ‘ABC 도로’라고도 불렀다. 원주 주둔 미군 부대 무전 용어로 도로 A(원일로) B(중앙로) C(평원로)로 이름이 붙여진 것이다. C 도로에 유독 영화관이 많이 들어섰다. 공공로워 시네마(Cinema) C도로라 호칭한 것이다.

원주, 아카데미극장 라스트 찬스

이제 우리에게는 이런 극장도 없다 우리근대건축연구소, '목원대학교 명예교수' 김정동

<시네마 천국>의 추억

우리가 잘 아는 외국 영화에 <시네마 빠라디소(Cinema Paradiso)>란 것이 있다. 참으로 잘 붙인 영화 제목이라 생각된다. 이탈리아로 Cinema는 영화관이라는 의미도 있다. 빠라디소는 천국(天國)을 말한다.

영화는 이탈리아의 한 지방 작은 극장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극장 영사실과 스크린 사이에서 나올 법한 스토리가 잔잔히 이어진다. 실체가 아니고 영화일 뿐이다. 그 영화가 준 잔영은 오래 가고 있다. <시네마 천국>은 1988년 개봉되었다. 1990년 아카데미 외국어영화상 수상작이 되었다.³⁾

여기서 영화의 주 극장은 시칠리아의 마을 지안카르디(Giancaldi)이다. 1980년대 영화를 촬영한 곳의 실제 이름은 '팔라조 아드리아노(Palazzo Adriano)' 마을이다. 시네마 천국의 화재 이전까지 영화관은 신부가 운영을 맡아 한 것이라 한다. 그러나 화재 이후 재건 자금을 시치오가 모두 부담하면서 그가 운영권을 넘겨받게 된다. 이 촬영지는 토토(Toto)의 어린 시절을 연기한 살바토레 카시오(Salvatore Cascio)의 고향이기도 하다.

영화를 자세히 보면, 영화 속 영사실에는 1954년 달력이 걸려 있다. 글씨 큰 장사꾼 달력이다. 벌써 70년 전의 달력이다. 영화 속 극장도 문 닫기 직전이다. 젊은이들은 다 도시로 떠났다. 역시 그쪽 극장도 사양산업이 되어 있다. 200석 극장 50석 채우기도 힘들었다고 한다. 재개봉관은 어디나 그랬다.⁴⁾ 원주도 마찬가지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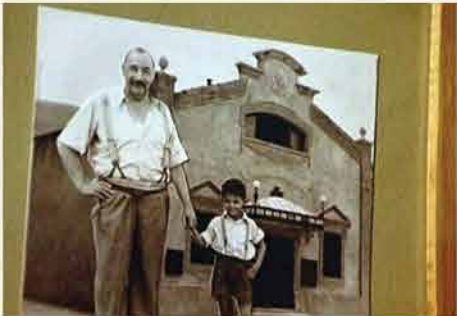
필자는 몇 년 전 미국 LA 할리우드에 머물 때 아카데미극장에 가 봤다. 아카데미 시상식이 열리는 극장이다. 몇 편의 영화를 몰아 보았다. 내가 얼마나 올드한 사람인가 그때 알았다. 나는 이대로 죽는게 낫겠다고 생각했다. 내게 퓨처 쇼크는 필요없기 때문이다. 무슨 소릴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서 더했다.



3. 할리우드 시상식이 열리는 LA 코닥극장과 그 주변. 이름만큼 규모가 크지 않았고 화려하지도 않아서 더 놀랐다.

오래된 극장 남겨야

필자는 2013년 여름 정년퇴직했다. 능력에 오버되는 일은 하기 싫어 될 수 있으면 홀로 지내기를 했다. 그 즈음 전국 지자체마다 이른바 도시재생 바람이 불며 사회 분위기를 띄우고 있었다.('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2013년 7월) 정부가 주도하는 것이었다. 신도시도 아니고 현도시 레트로를 정부가 주도하겠다는 것이다.



2. 영화의 주인공 할아버지, 어린 소년 토토 그리고 배경이 된 극장. 중앙통의 1920년대 전후 극장은 지붕 마감선이 중요했다. 그래서 아르 데코 스타일이다. 특히 일본과 한국에서 극장 파사드는 거의 간판 차지라 대중 못그려트렸다.

옛날 서울에는 '허리우드극장'이 있었다. 표기법이 제각각일 때라 오히려 재미있다. 광화문통에는 아카데미극장이 있었다. 극장 건물보다 간판이 눈에 띄었다. 청량리에는 오스카극장도 있었다.⁵⁾ 멀리 대한극장 앞에는 아테네극장도 있었다. 당시 극장 이름은 아카데미, 키네마 이런 것이 제격인 때였다. 대구, 광주 등 지방 도시도 마찬가지였다. 외국 영화 상영관은 외국 이름으로 우리나라 영화 상영관은 경동, 경남, 서대문, 동대문 등으로 했다. 단성사, 국도극장은 이것 저것 다 할 수 있었다. 오늘의 주인공 원주극장은 '아카데미'였다. 아카데미 천국일 때였다.

원주도 질세라 참여했다. 지자체장이 무인가 이득이 있다고 생각했기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원주도 타 도시와 마찬가지로 정부 예산에 기대고 싶어 했다. 당연한 일이다. 건축물, 거리, 도시는 어느 날 누군가에 의해 한꺼번에 바뀌지 않는다. 바뀌어도 안된다. 하물며 역사적, 문화재적 잣대를 들이댈 때는 더 어렵다. 주어진 기간에 건물을 재생하는 것은 불가하다. 이미 구룡포에서 그런 상황이 벌어진 일이 있었다. 시장(市場)과 주민들에게 맡겨야 된다고 생각했다.⁶⁾ 목포에서 이미 말썽이 나고 있었다. 자연스럽게 하면 되는 것을 인위적으로 했기 때문이다. 이제 답은 뻔하다. 졸속, 무계획, 예산 낭비... 누가 책임질 것인가.

극장은 단관, 복합관으로 나뉘진 후 더 상황이 악화되었다. 멀티플렉스에 밀리면서 영화관들이 하나 둘 문을 닫게 된다. 줄 서서 표 사고, 압표를 사던 습관이 끝난 것이다. 필자는 2003년 도쿄에 있을 때 이를 경험했다. 신문과 간판을 보고 영화를 보러 가던 때였다. 신바시(新橋) 일대에 영화관이 많았는데 영화관 안에 여러 영화를 상영하고 있었다. 첫 경험이라 무척 당황스러웠다. 그 이후 오히려 영화관 출입이 줄어들어 버렸다. TV에서 보여주는 <영화극장>도 끝까지 본 적이 없는 위인이다. 자거나 탄질을 했기 때문이다.

지방 소도시의 극장들은 점점 더 가족 영화관이 되어 갔다. 부모가 운영하고 자식이 돕는 형태였다. 어언 간 영세업이 되어 버렸다. 세금 걷는 지자체가 할 일은 이 가족 기업을 도와 문 안 닫게 하는 일이었다.

극장을 철거하면 그 자리에 주차장을 만들고 얼마 안 가서 숙박업소, 사행 용도 건물이 들어서는 것은 공식이다. 원도심은 더 망하게 되는 것이다. 극장은 표도 세금도 안 된다. 잘 되고, 이득이 있다면 왜 문 닫고 건물을 부수겠는가.

이제 정말 딱 아카데미극장 하나만 남았다. 그래서 시민단체들이 '이것만은 정말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 같다. 이 건물의 의미를 지키며 보존한다면 오히려 원주의 효자 상품이 되지 않을까. 건물의 가치를 알아주는 철거 반대 시민단체가 대단하다고 느껴진다.

극장, 지나간 추억, 우리의 그 시대

다시 지난날 이야기다. 아카데미극장은 원래 시민극장이었다. 1963년 9월 23일 원도심에 영화관이 문을 열었다. 어느 도시건 원도심은 역을 중심으로 한다. 어렸을 때 추억, 시골 기차역 앞은 항상 도로가 있었다. 그 자락에 극장과 서커스 텐트, 만화방이 있었다. 어린 눈에도 풍물이었다.

내가 누이 손을 잡고 금촌의 한 영화관에서 본 '가는 봄 오는 봄(1959년)', 인천 애관극장에서 엄마와 함께 본 '장화홍련전(薔花紅蓮傳; 1956년)'은 기억에도 새롭다. 우리만의 시네마 천국이었다. 또한 동네 어귀 만화방에서 <엄마 찾아 삼만리> 같은 걸 눈물로 보았다.⁷⁾ 잠자리에선 혹시 엄마를 잃어버릴까봐 노심초사했다. '엄마!!! 오래 살아요!' 1.4후퇴의 뒤끝이었다.

2015년 말 원주 시청이 주도하고 건축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가 열렸다.(좌장, 최재석 한라대 건축학부 교수) 내용 중 강원감영 살리기, 원주 아카데미극장 살리기 건이 포함되어 있었다.⁸⁾

현재 춘천이 인구 30만, 원주는 36만... 원주는 강원도의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원주는 역사의 중요점에 있었다. 강원감영이 있었고 6.25의 최전선이었고. 등록문화재 포함 문화재 건물도 제법 있다. 필자가 관여한 것도 있다. 치악산, 원주역과 급수탑, 감리교 선교사 유적, 문화예술인의 흔적들... 물론 원주 아카데미극장도 포함된다.

3) 음악은 엔니오 모리코네. <엔니오 더 마에스트로>라는 영화가 원주 아카데미극장에서도 상영된 적이 있다.

4) <시네마 천국> 주무대는 영사기사와 토토가 일하는 영사실이다. 할아버지 기사는 2006년 7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 1979년생인 토토는 지금 40대 중년으로 고향 마을에 살고 있다.

5) 그 옆집 병집 이름은 로마제과였다. 아마 삼성생명 사육 자리로 추측된다.

6) 이후 원주 의회가 주도한 원주포럼(발제자: 최재석 교수, 전영철 교수, 2016.7.7.)과 원주시 주관 도시재생 아카데미 중간보고회(최재석 교수, 서교하 이서건축대표, 2016.10.19.)도 내용은 유사했다.

7) 문화재청은 2013년 1월 20일 문화사적으로 자료 가치가 큰 김중례(1927~2001) '엄마 찾아 삼만리'(1958년) 등 만화 원화(原畵)를 문화재로 등록 예고했다.

8) 이민직의 소설에는 『』『치악산』이 있고, 『은세계』에는 강원감영, 원주감영이 등장한다. 강원도가 주무대로 등장하는 것이다.

원주, 아카데미극장 라스트 찬스

이제 우리에게는 이런 극장도 없다

우리근대건축연구소, 목원대학교 명예교수 김정동



4. 원주 C도로 상의 원주 아카데미극장. 1983년 제작된 국산 영화 <비련>이 상영되고 있다. 극장 간판시대였다. 왼쪽 발코니가 독특하다. 오른쪽 건물은 이후 변형되었다. 시네마 천국 영화관 보다 더 정감있다. 시는 극장을 철거한 뒤 그 자리에 야외공연장과 주차시설을 마련할 것이라 한다. (사진 변해원 대표 제공)

전 시장 때 보존이 결정되었고, 시에서 32억이라는 재정을 투입 매입한 상태여서 모두가 극장이 보존되고 활용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다. 2020년 오픈 행사가 있었다. ‘안녕 아카데미’를 통해 극장에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이 과정을 통해 아카데미극장이 새로운 문화 플랫폼으로 활용될 수 있겠다는 가능성을 보게 되었다. 이후 원주에서는 아카데미극장에 주는 예산도 거부하는 일이 벌어졌다. 거의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런데 그 사이 대부분의 정책 담당자가 바뀌면서 정책이 반대로 결정되었다. 결과적으로 보존활성화는 철거 재개발로 바뀐 것이다.

아카데미극장은 연건평 1,237m²(374.4평) 1층 상영관 662석 규모이다. 전면 파사드가 23.1m이다. 3층이 영사실과 여타 시설들이다. 철근콘크리트 라멘조와 시멘트 벽돌 조적조가 섞여 있는 보통 건물이다. 지붕은 목조 트러스 구조로 장 스팬(17.7m)이 돋보인다. 건축가는 확인이 안되고 있다. 건축사 면허가 1965년 6월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강원도 지역의 기존 건축대서사가 한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자도 당시 지역 건축업자가 수공업적으로 시행한 것 같다.

필자도 몇 년 전 서울 청계천변의 아시아극장을 어떻게라도 살려볼까 하고, 관심 갖게 하려고 했으니... 능력 부족만 실감나게 하고 끝난 적이 있다. 이소룡(李小龍) 장사도 해봤으나 허사였다. 종로변 레코드 가게 주인들이 대부분 이 아세아극장 언저리에서 백판 적색판 장사를 하던 분들이라 동감하는 바는 많았다. ‘옛날이 좋았어요’가 마지막 답이었다. 1962년 영화 전성기에 증축해서 6층에 극장을 만들었다. 2001년 문을 닫을 때까지 청계천변 사람들의 오아시스였다. 이후 전자상가가 되었는데 이번에 철거하면서 속살이 드러나게 된 것이다.



5. 아카데미극장 내부. 좋은 공간이다. 시민단체는 내부에 있던 영사기 등 집기류와 기록물들을 리스트업 해 놓은 상태이다. 아카이브 자료가 중요한 시대가 되고 있다. (2023.8.8. 아카데미의 친구들 제공)



6. 아세아(亞細亞) 극장의 아세아는 아시아를 한문으로 풀어쓴 이름이다. ‘굳바이 부르스리’가 상영되고 있다. 이소룡 것은 거의 다 이 영화관에서 상영되었다.

라스트 찬스

2006년 이후 문을 닫은 지 10년이 되던 해인 2016년 1월 시청에서 첫 공청회가 개최되었다. 7월에는 시의회가 주관하는 <아카데미 보전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되기도 했다.

2019년 5월 아카데미극장 포함, 원도심 문화재청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 활성화 사업의 제안서에 대한 문화재청의 심사가 진행되었다. 다른 도시와 비교하는 것이다. 3개월 후인 8월 제안서 탈락 통고가 왔다. 이후 원주시는 극장 철거를 당연시하게 되었다.

2020년에야 극장 재생 사업이 거론되었다. 2020년 8월 ‘안녕 아카데미’ 행사가 시작되었다. ‘굿바이 아카데미’ 행사로 오해되어 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2021년 <원주 아카데미극장 보존 추진위원회>가 결성되었다. 이듬해 1월 다행히 정식 절차가 완료되었다. 시에서 매입비 32억원으로 사유재산을 사유화한 좋은 사례가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2022년 7월 1일 민선 8기가 출범하며 새 시장은 원주 아카데미극장에 관한 방안을 전임자와 반대로 바꾸었다. 아무리 옳은 판단이라 하더라도 졸속, 무리라는 인식이 주어질 수 밖에 없는 일이었다. 보존위는 아카데미 포럼을 개최,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어 방향을 잡기 위해 노력했다. (원주신문, 2022.10.18) 한라대 건축학부 김철환 교수도 시민 참여 인식의 중요함을 말했다. 필자는 일부러 한라대 특강을 하러 갔다. 극장 보기를 다시 시도한 것이다. 그 문제가 남의 일 같지 않았다.



8. 문화재청장 상장(내셔널 트러스트 사무국장 김금호 제공)



7. 아세아극장 6층 벽면에 아세아극장이란 극장명이 붉은 글씨로 쓰여있다. (필자 촬영, 2022.3.23)

원주, 아카데미극장 라스트 찬스

이제 우리에게서 이런 극장도 없다 우리근대건축연구소, 목원대학교 명예교수 김정동

재래시장 안 경동극장의 예

1960년은 코니 프랑스의 Mama가 한창 레코드 가게를 달굴 때였다. 청량리 시장 안에 재개봉관 경동극장도 영화가 상영되고 있었다. 여기 극장을 커피문화공간으로 바꾼 사례가 있어 원주 아카데미극장에게는 좋은 예가 될 것 같아 다시 한번 소개한다.

서울 청량리 재래시장인 경동시장 안⁹⁾에 스타벅스 <경동 1960점>이 있다. 전혀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다. 스타벅스는 대개 1급지에 자리를 잡는데 여기는 재래시장 안이다. 손님 중에는 시장 아저씨 아줌마가 있다. 내가 노점상 70대 아주머니에게 스타벅스에 대해 질문하니 거침이 없다. “왜 우린 가면 안 되냐?”하는 것이다. 아야 그게 아니고 지금 파는 물건이 몇천 원에 해당하는 것들인데? 우호적 분위기가 넘친다. 어느 날의 에피소드다.

10여 년 전 좀 근대문화재, 즉 등록문화재로 등록된 영화, <자유부인>, <시집가는 날>(2011.3) 등 흑백 필름을 가져다 스타벅스 관계 장소(덕수궁 정관헌)에서 틀어주기도 하고, 근대 문화유산의 중요성을 대외 홍보까지 해준다는 말을 그곳 관계자에게서 들은 적이 있다. 그런데 그 스타벅스를 재래시장 문 닫은 극장 자리에서 만나게 될 줄은 생각도 못했다. 이 자리는 1960년대에 지어진 경동극장이 있던 곳이다.

하여튼 경동극장은 서울의 동쪽에 있어서 지어진 이름이다. 시장 이름도 마찬가지이다. 그 4층짜리 시장 건물 3~4층에 200석 규모의 단관극장, 경동극장이 있었던 것이다. 재개봉관이었다.

카페는 2022년 겨울 성탄절 즈음에 오픈했다. 그 문 닫은 극장을 새롭게 인테리어 하여 <스타벅스 경동 1960점>으로 재탄생시킨 것이다. 규모는 1201.7m²(363.5평)로 큰 편이다. 극장 외부는 다른 시장들에 섞여 있어 의미가 없고 내부가 중요하다. 객석 경사로와 통로를 잘 이용해 매장화시켰다. 천장 목조 트러스도 활용했다. 거칠게 마감하고 철골로 보강한 것이 주요 트렌드였다. 영사실 쪽이 최상부인데 그쪽은 VIP석 같았다. 스타벅스 경동 1960점에는 커피, 빵 등 판매도 중요하지만 원 성격을 살려 문화예술인재 공연도 하고 있었다.



9. <스타벅스 경동 1960점>, 영사실 쪽에서 극장 스크린 쪽을 향해..... 스타벅스 카운터이다. 객석은 경사를 잘 살려 부스 형태로 그렘했다. 오른쪽은 통로인데 독립 좌석이다. 천정은 목조 트러스에 목재 상판 붙임이다. 대들보와 현치는 구조재로 보강한 것이다.



10. 충남 서천군, <구 판교극장> 2021년 10월 13일 등록되었다.

원주 아카데미극장을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개안(改案)하면 더 좋은 공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았다. (필자 사진)

이제 우리 주위에 오래된 극장이 별로 없다. 그 흔할 것 같은 극장이 다 문을 닫았고 그 자리에 여타 시설물들이 들어섰다. 등록문화재가 된 극장이 하나 있어 여기 소개한다.

서천 판교극장은 1930년 충남선 판교역 철도개통과 함께 서천지역 활성화 중심지 일대에 세워진 것이다. 서천군은 군내 근대문화유산을 보존하고자 지난해 문화재청의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 활성화 공모사업에 응모해 후보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극장은 1961년 개관한 것이다. 원주의 극장들과 같은 시기였다. 당시 극장들은 <새마을운동> 홍보와 관계가 깊었다. 2021년 가을, 등록문화재로 등록되었다. 서천군수는 “판교 근현대 문화유산이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되며 그 가치를 전국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며 “앞으로 판교 마을이 가치 있는 근대문화유산 마을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문화재청, 자료) 2016년 방치된 극장의 잠재적 가치를 발견하고 극장을 보존해야 한다고 문화기획자, 예술가, 건축가가 모여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아카데미의 친구들’이 결성된 것이다. 이후 ‘아카데미의 친구들 범시민연대’까지 확장되었다. 다양한 층위의 시민이 모여 극장을 지키고자 하는 네트워크가 만들어진 것이다. 변해원 대표는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간다면, 아카데미극장이 이후 그 자리에 서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농성 65일 째, 2023.8.8. 기준)

원주의 아카데미극장도 당시 등록문화재 안건 회의록을 보면, 등록문화재 등록을 상정하고 조건들을 제시하고 있다. 어려운 조건도 아니었다. 현재 추세는 일정 법적 조건만 충족되면 가능한 등록을 해주는 흐름이다. 50년 존치 유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먹고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은 자존심 상하는 일이다. 타지 사람으로서도 참으로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우리같이 문화재 지킴이를 자처하는 자들도 하늘만 바라본다. 오래전부터 원주의 오래된 건축물을 중시, 멸실의 위험으로부터 지켜내기 위해 나름 마음을 보태왔다. 별 성과를 거둔 것은 없지만.... 또 한 번 참견해 본다. 잘 되길 바란다. (김정동, 우리근대건축연구소)

9) 지하철 1호선 제기동역 2번 출구에서 도보로 5~8분 정도 소요

조선시대 봉수대의 이해와 앞으로의 과제

영남성곽연구소 소장 | 나동욱

1. 조선시대 봉수 개관

‘봉수(烽燧)’는 햇불(炬)을 의미하는‘봉(烽)’과 연기(烟)를 의미하는‘수(燧)’가 합쳐진 용어로 낮에는 연기[晝烟], 밤에는 햇불[夜火]을 이용, 주연야화(晝烟夜火)의 방법으로 변방의 위급한 소식을 중앙에 전달하는 군사 통신을 말한다.

삼국시대에도 봉수제도가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지명이나 설화가 전해지고 있으며, 최근 전북지역의 고대 봉수에 관한 논의 등도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¹⁾. 고려시대에는 의종 3년(1149) 서북면병마사 조진약(曹晉若)의 상주(上奏)로 야화주연(夜火晝烟)에 의한 봉호식(烽燧式)을 정하였고²⁾, 충정왕 3년(1351)에 비로소 고려의 수도 개성 송악산에 봉호소를 설치함으로써³⁾ 고려의 봉수제가 완성되었다.

조선시대에는 고려시대의 봉수제도를 이어받아 운영되고 있었으며, 세종 즉위 원년(1419)에는 봉화의 수를 해상과 육지의 적변에 따라 5거제로 구분하고 낮에는 연기로 대신하는 제도가 확정되는 등 세종 때 이르러 크게 정비되었다.

조선시대의 『경상도지리지(1425)』, 『세종실록지리지(1454)』 등에는‘연대봉화(煙臺烽火)’ 또는 ‘봉화(烽火)’라 하였고, 『신증동국여지승람(1530)』이후 기록에는 ‘봉수(烽燧)’라는 표기로 정착된다. 기록상 연대(煙臺)는 봉수 그 자체와 봉수 내 연대라는 시설물로서 연변봉수에서 항시적으로 1거 또는 비상시 5거를 올리기 위해 축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⁴⁾.

조선시대 봉수의 전달경로 중 주 선로는 직봉(直烽)이라 하고, 보조 선로는 간봉(間烽)이라하는 데 모두 서울 목역산(木覓山, 남산)에 도달 한다. 또한 설치된 지역에 따라 경봉수(京烽燧)라 칭하는 서울의 목역산봉수(木覓山烽燧), 내륙에 설치된 내지봉수(內地烽燧, 복리봉수(火)腹裏烽燧(火))라고도 함), 해안이나 국경에 설치된 연변봉수(沿邊烽燧) 등으로 나누기도 한다. 이외에도 중요지역의 읍이나 영·진(營·鎭)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였던 권설봉수(權設烽燧)가 있다.

증보문헌비고(1908)』에 의하면 조선 후기 전국에 5로(路)의 봉수 노선이 기록되어 있는데 주요 경유처는(표 1)⁵⁾과 같다. 여기에서 확인되는 전국의 봉수는 622개 처이고 그 가운데 남한지역의 제2로 노선과 제5로 노선의 봉수를 합치면 249개 처에 이른다. 제주도의 봉수는 순한 일주 봉수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경봉수에 전달되지는 않았으며 직봉 25, 간봉 38개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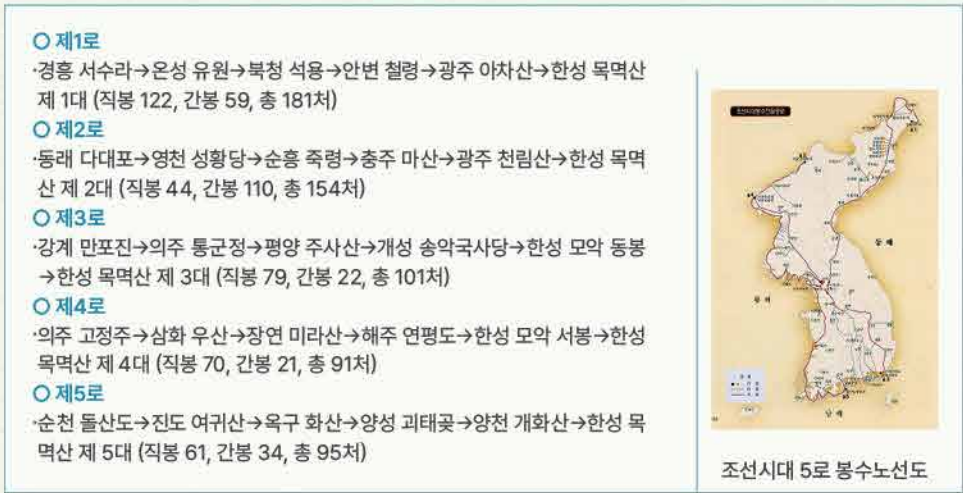


표 1. 조선시대 봉수경로 및 노선도

1) 홍성우, 「전북 동부지역 가야봉수설 검토」, 『한국고고학보』 2023권 2호, 2023.
조명일, 「전북 동부지역 봉화의 구조」, 『임실 봉화산 봉화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 군산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2021.
2) 『고려사』 권81, 지35, 병1, 의종 3년 8월조, 「西北面兵馬使 曹晉若奏 定烽燧式 平時夜火晝烟各一 二急三 急四 急四 每所防正二 白丁二十人 各例給平田一結」.
3) 『고려사』 권81, 지35, 병1, 충정왕 3년 8월조.
4) 김주홍, 「조선시대의 연변봉수」, 학술정보(주), 2010, p44.
5) 전단학회, 『한국사』 근세 전기편, 1962, p.526~527 봉수경로 참고 작성.

따라서 노선의 조정 등으로 폐지되거나 이전 시기의 봉수까지 합치면 그 수는 훨씬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조선 세종대에 설치된 연변봉수는 해안 요충지마다 평균 7~8km의 간격으로 조밀하게 설치되어 있었고, 내지봉수는 평균 10~12km의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었다. 연변봉수가 그보다 조밀하게 설치된 것은 쓰시마[對馬島]방면에서 침입하려는 왜구로부터 철저히 대비하기 위하여 축조하였음을 알 수 있다. 봉수대의 시설은 내지봉수⁶⁾와 연변봉수⁷⁾가 서로 달랐다. 세종 29년(1447) 3월 ‘연변 연대조축지식(沿邊煙臺造築之式)’과 ‘복리봉화배설지제(腹裏烽火排設之制)’가 동시에 마련되어 연변봉수와 내지봉수(복리봉화)의 시설 규정이 마련되었다.

연변봉수의 경우 연변연대(沿邊煙臺)라 하여 “연변각처 연대는 높이 25척(7.5m), 둘레 70척(21m), 대하사면(臺下四面)은 30척(9m)으로 하여 축조하고, 연대 주위를 10척(3m)의 넓이와 깊이로 파는데 영조척(황종척으로 환산할경우 30.65cm)으로 한다, 또 갱참(坑塹)의 외면에 목익(木杙)을 설치함과 동시에 연대 위에다 가옥(假屋)을 지어 병기 및 조석으로 사용하는 물과 불을 담는 기명(器皿) 등을 보관토록 하였다(『沿邊各處煙臺築造 高二十五尺 圍七十尺 臺下四面三十尺 外掘塹深廣各十尺 皆用營造尺 又於坑塹外面設木杙長三尺 削皮銳上植地 廣十尺 臺上造假屋 藏兵器及朝夕供用水火器皿等物....』⁸⁾”.

한편, 내지봉수(복리봉화)의 경우 “복리봉화는 연변연대와 달리, 대개 연대(煙臺)를 축조하지 않고 종전의 봉수가 있던 봉두(峰頭)에다가 땅을 고른 다음 연조(煙竈)를 쌓는다. 위는 뾰족하고 아래는 크게 하여 방형 또는 원형으로 쌓되 그 높이는 10척을 넘지 못하게 한다. 또 둘레에는 담장을 쌓아 사나운 짐승들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하였다(『腹裏烽火 非沿邊 煙臺之比 勿築臺 於在前排設峰頭 除地築煙竈 上尖下大 或方或圓 高不過十尺 且繚以垣墻 以避惡獸』.” 문헌을 통해 보면 연변봉수는 규모 면에서 내지봉수에 비해 훨씬 규모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모두 봉수 본연의 기능인 거화(炬火)를 위한 연대·연조의 시설에 더하여 거화 재료 및 생활 용구 등을 보관하기 위한 고사, 봉수군의 생활시설인 건물 외에 봉수와 봉수군을 외적이나 산짐승으로 보호하기 위한 방호무기·방호벽·호·목익(끝이 뾰족한 나무말뚝) 등이 기본적으로 설비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표 2).

구분	내용	단위	위천봉수	금성봉수	내용	단위	위천봉수	금성봉수
거 화 시 설	연대(煙臺)		1	5	화통(火桶)		5	5
	연굴(煙窟)		5	5	통아(桶兒)	箇環	1	5
	망덕(望德)		1	1	종화분(種火盆)	좌(坐)	5	1
	약승(藥升)	(大)	1		씨리괘(紐炬)	병(柄)	50	50
	화전(火箭)	柄·箇	9	9	괘(炬)		3	3
	당화전(唐火箭)	//	9	9	설(積柴)		5	5
	화약(火藥)	양(兩)	5	5	토목(土木)	訥·同	5	5
	화승(火繩)	沙里	1	1	사풀풀(柄草)	//	5	5
	화궐(火鐵)	통(筒)	2	2	고주을(槓注乙)	待沙里	1	1
	화석(火石)	//	2		이탄(里炭)		5	
	석회(石灰)	섬(石)	5	5	썩(艾)	訥·同	5	5
	세사(細沙)	//	5	5	말똥(馬糞)	섬(石)	5	5
	초거(草炬)	병(柄)	50	50(松炬)	쇠뿔(牛糞)	//	5	5
	조통(槽桶)	조(槽)	5	5				
	장전(長箭)	부(部)	5		백기(白旗)	면(面)	1	1
	편전(片箭)	//	1		색표기(色表旗)	//	5	
방 호 시 설	궁자(弓子)	장(張)	1	1	삼혈총(三穴銃)	병(柄)	1	
	교궁자(校弓子)	//	1	5	도끼(斧子)	//	20	20
	엄심(掩心)	좌(坐)	1	5	방패(方牌)		6	6
	염두(地頭)	//	1	5	전각(戰角)	목(木)	1	1
	지갑주(紙甲冑)		15		연환(鉛丸)	개(箇)	30	30
	늑쇠징(鐵鐺)		1		낫	병(柄)	5	3
	작은북(小鼓)		1		조소(條所)	건(件)	3	3(巨里)
	말목(抹木)		무정수	무수	이기장(里橫杖)	개(箇)	20	20
	도(刀)	병(柄)	2	5(長刀)	고월라(高月羅)	//	15	10
	승자총(勝字銃)	//			법수목(法首木)	//	5	5
	사다리(前梯)	개(箇)	1	1	무릉석(無稜石)		5	5
	초가(草架)	간(間)		2	일류기(立柳器)	부(部)	2	1
	가가(假家)	//		2	물독(水盆)		5	3
	기와집(瓦家)	//	2		좌반(坐盤)		5	
	곳집(庫舍)	//	2		물통(水桶)		6	6
	공석(空石)	립(立)	10	5(坐空石)	수저(立匙)	지(指)	5	5
생 활 용 구	표주박(瓢瓢子)		5	5	지침(指接)	주(竹)	1	
	가마(釜子)	좌(坐)	1	1	사발(沙鉢)	립(立)	5	5
	밥술(食鼎)	//	1		노구(爐口)	좌(坐)	1	1
	대변량(待邊糧)	석(石)	1	10	횡자(橫子)	//	1	
	조식(草石)		5	2(立草木)	동앗줄(同花注乙)	건(件)	5	3

표 2. 봉수대의 시설 및 기본 비품(『輿地圖書』에 의함)

6) 이 분야의 대표적 연구로는 김주홍, 『백사학위는문』 조선시대의 내지봉수, 충북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2011.
7) 이 분야의 대표적 연구로는 이철영, 『백사학위는문』조선시대 연변봉수에 관한 연구,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기정관리학과, 2006.
8) 『성종실록』 29년 3월 4일(병자)조.

내지봉수의 형태는 연변봉수의 연대와는 달리 크기도 작은 연조라는 거화시설과 방호벽 외에 다른 시설이 언급되어 있지 않으나 연변봉수에 준하는 방어시설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성종 6년(1475) 5월 이후에는 모든 봉수의 연대나 연조 위에 연통(烟簫)을 만들어 풍란(風亂)으로 주연(晝煙)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조치하였다고 한다⁹⁾(『晝報必以烟 有風則烟不直上 候望爲難 今烽燧處 烟簫悉令造設』). 봉수에서 낭연(狼煙)이라 하여 이리 똥을 땀감이나 쉼 속에 넣어 불을 피우면 연기가 똑바로 올라간다고 하였는데, 이는 그만큼 대응봉수에서 식별이 가능하도록 연기를 올리는 것이 중요한 관건이었다.

이와 같이 봉수는 지역에 따라 연대(煙臺)나 연조(煙竈)를 설치하여 적의 침입 등에 관한 변보(邊報)를 신속하게 전해진 거화법(擧火法)에 따라 중앙에 전달하는 것이 그 중요한 기능이었다. 동시에 인근 백성들에게 방포(放砲)로 적침을 알려 진보(鎭堡) 등에 대피시키는 지역방어의 기능도 수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한편, 봉수의 신호 구분은 고려시대는 4거(炬)제로 구분하여 신호하였고, 조선시대의 경우는 5거제로 해안과 내지, 제주지역에 따라 <표 3>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적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개구름이나 비바람으로 인하여 봉수가 전달될 수 없을 때에는 화포¹⁰⁾나 각성(角聲)¹¹⁾ 또는 기(旗)로써 전보하거나 봉수군이 직접 치보(馳報)¹²⁾ 하였다.

시대	구분	1거	2거(재거)	3거	4거	5거
고려	평상시		2급(보통위급) (적 출현?)	3급(정세가 긴급) (적이 국경에 접근?)	4급(정세가 초긴급) (적 또는 적선과 교전?)	
	내지	평상시	적 출현	적이 국경에 접근	적이 국경에 침입	적군과 교전
조선	연변	평상시	적선 출현	적선이 해안에 접근	적선과 교전	적군이 상륙
	제주	평상시	적선 출현	적선이 지역에 접근	적선이 침입	적군과 교전

표 3. 고려·조선시대 봉수신호

통상 변방에서 신호를 올리는 시간은 보통 한낮이었으므로 어느 노선이든 한성에서 멀리 떨어진 곳일수록 주연(晝煙)으로, 서울에 가까워지면서는 야화(夜火)로써 신호하여 한밤에 경봉수에 도달하였다. 함경도 육진(六鎭)의 경우 처음 국경에서 오후에 봉화를 올리면 저녁 해질 무렵에 목역산봉수의 직전인 아차산봉수에 도달하였다. 따라서 오후12시~1시 즈음 올린 신호가 저녁 5시~6시에 도달한 것으로 아차산봉수에서 함경도 종성까지 약 550km를 시간당 110km정도 속도로 전달한 것이 된다. 당시의 그 어느 통신수단보다도 신속한 것이었다.

봉수를 올리는 거화법(炬火法)과 관련하여 단종 2년(1454)의 기록이 있다. “매 한 개의 봉화마다 다섯대의 봉수대를 벌려 설치한 것은 적변에 따라 2,3개의 햇불이나 혹은 4,5개의 햇불을 일시에 아울러 들고자 함인데, 지금의 봉졸(烽卒)은 무지하여 다만 한 대의 봉수에서 그 햇불이 보였다, 안보였다 하는 것에 의해 그 수를 준(準)하오니, 만약 먼 곳의 봉졸이 그 처음의 햇불을 보지 못하고 나중의 것을 보았다면 반드시 착오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청컨데 이제부터는 봉화를 적변(賊變)에 따라 일시에 아울러 들게 하소서”¹³⁾ 하였다. 따라서 모든 봉수에는 5개의 봉수 신호를 동시에 보낼 수 있는 시설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사변이 있으면 신호를 쏘아서 전하여 서로 알게 하였으나 만약 바람이 거슬러 불면 서로 듣지 못하오니, 청하건데 미리 나무를 쌓아 두었다가 사변이 있거든 혹은 신호를 쏘기도 하고, 혹 쌓아둔 나무에 불을 놓기도 하여 적변에 응하게 하소서(兵曹據慶尙道右道水軍處置使啓本報都統府以啓曰: “每一烽火, 列置五臺者, 欲令隨其賊變, 或二三炬、或四五炬, 一時竝舉也. 今烽卒無知, 只於一臺, 隱見其炬, 以準其數, 若遠處烽卒不見其始, 但見其終, 則必致錯誤, 請自今烽火, 隨賊變, 一時列舉.” 從之.)¹⁴⁾ 기록을 통해서 유사시의 대응책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봉수의 운영은 중앙의 경우는 병조(兵曹)의 무비사(武備司)가 관장하고, 지방의 경우는 관찰사·수령(守令)·병사(兵使)·수사(水使)·도절제사·순찰사 등 모든 군사책임자가 그 임무를 맡았다. 병조에서는 목역산봉수의 다섯 곳에 도달한 적변(賊變)의 여부를 다음날 이른 아침에 임금께 상주하였고, 유사시에는 밤중이라도 즉시 보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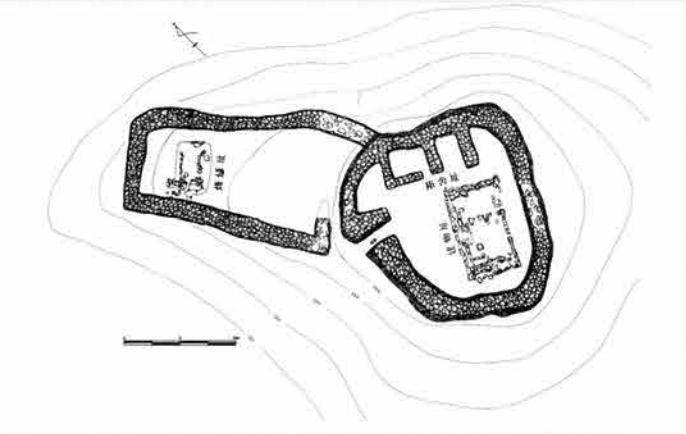
각 봉수대에는 도별장(都別將) 1명을 두고 그 밑에 별장(別將), 감고(監考), 봉군(烽軍)을 두었다. 봉수대에는 봉졸(烽卒)인 봉수군(烽燧軍)과¹⁵⁾ 하급장교인 오장(伍長-監考)이 배치되어 임무를 수행하였다. 이들은 봉수대 근처에 거주하는 사람들로서 다른 일에 종사할 수 없고 오직 망보는 일에만 전념하도록 하였다. 오장은 봉수군과 같이 생활하면서 봉수대의 이상 유무를 수령이나 진장(鎭將)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었다. 오장으로부터 이상 유무를 보고 받은 수령은 무사 시에는 월마다 관찰사에게 보고하는 한편 3. 6. 9. 12월의 매분기별로 병조에게 보고하였다. 성종 때에는 사변이 있음에도 봉수가 오르지 않는 폐단으로 인하여 무용론이 제기되기도 하였고, 연산군 10년(1504) 11월에 일시에 전폐되었다가, 이후 종종 때에 다시 부활하였다. 그러나 종종 27년(1532) 9월 “국초에 봉수의 봉군(不謹)을 염려하여 물려 시험해 본 결과 변방으로부터 5~6일 만에 서울에 도달하였는데, 지금은 비록 1개월이 걸려도 통할 수 없을 것이다”¹⁶⁾ 라는 논의를 통해 봉수의 기능이 제대로 운영되기 어려웠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봉수제는 남해안에 왜구가 침입하였을 때나 삼포왜란과 사랑도왜변, 임진·정유왜란 때에도 봉수가 제때 도달하지 않아 또 다시 무용론이 대두하게 되었다. 선조 38년(1605) 4월 파발제(擺發制)가 등장하였고, 공문을 전달하기 위한 역참(驛站)으로 기발(騎撥)과 보발(步撥)을 두게 되어 그 기능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조선 말기에도 이양선(황당선이라고도 함)의 출몰을 알리는 등 그 역할이 유지되고 있었다. 그러나 1885년 근대적 통신시설인 전신전화가 설치되면서 봉수의 기능이 점차 약화되었고, 고종 31년(1894)에 이르러 모든 봉수가 폐지되었다. 어찌 되었든 전통적인 봉수제도는 조선시대의 국방상 중요한

정보전달 체제로서 유지되어 왔으며, 근대적 통신수단의 원조라는 점에서 역사적으로 차지하는 위상이 높았음은 부정할 수 없다.

2.봉수대 연구 동기와 유적조사의 교훈

1990년 늦가을 대학박물관 조교시절의 일이다. 경남 양산시 상북면 석계리 마을주민들로 구성된 원적산봉수 보존회 회원들의 조사 의뢰로 학생 몇몇을 데리고 양산 상북면 원적산(圓寂山) 소재 원적산봉수대를 지표조사하게 되었다¹⁷⁾. 이봉수는 조선시대 기록상의 위천봉수(渭川烽燧)로 남쪽의 금정산 계명산봉수(谿鳴山烽燧)에서 신호를 받아 북쪽으로 연양읍내의 부로산봉수대(夫老山烽燧)에 전달하는 제2로의 직봉봉수이다. 경부고속도로가 지나가는 지하통로를 지나 봉수대로 오르는 길은 군부대가 낸 비포장도로인데다 경사가 심하여 지프를 운전하는 내내 등골이 오싹하였으며 당시의 말이 정말지표조사이지 발굴조사나 마찬가지인 조사였다. 마을 쪽에서 보면 동쪽 산자락이 멈춘 해발 325m 지점 산등성이에 큰 소나무가 한그루가 서 있고 돌담과 같은 시설이 있어 이곳이 봉수대임을 짐작할 수 있었다.

원적산봉수대는 석축으로 둘러싸인 원형의 방호벽 서쪽으로 연결하여서 길이 2,000cm, 너비 770cm 정도 규모의 사다리꼴의 방호벽이 길게 연결된 특이한 구조였다(도면 1, 사진 1). 원형의 방호벽은 서남쪽에 너비 105cm 정도 크기의 문지가 있었고, 방호벽 내에서는 주간거리 약 250cm의 정면 3칸, 주간거리 약 150cm의 측면 2칸짜리 규모로 서향한 기와집터가 확인되었다. 그리고 중심 칸에서 아궁이와 온돌시설도 확인되었다. 건물지의 서북 편으로는 봉수에 사용되는 물품을 보관하던 장소로 추정되는 석축의 고사(庫舍) 2칸이 배치되어 있었다. 출입구가 서남쪽으로 난 사다리꼴 방호벽 내부에서는 길이 300cm, 너비 200cm, 깊이 55cm 규모로 1~3단이 잔존한 장방형의 연조(煙竈)가 서남쪽 방호벽에 붙어 조사되었다. 조사에서 기와 편과 백자 편, 옹기 편, 철제 갑옷 편, 머슴쇠 등이 출토되었다.



양산 원적산봉수대 평면 실측도



양산 원적산봉수대 연조

9) 『성종실록』 6년 5월 27일(을해)조.
10) 『세종실록』 29년 4월 5일(병신)조.
11) 『세종실록』 18년 윤6월 23(정해)조.
『문종실록』 원년 7월 18일(경신)조.
12) 『경국대전』 권4 병권 봉수조.
13) 『단종실록』 2년 11월 8일(을묘)조.
14) 『세종실록』 14년 6월 6일(계사)조.

15) 이 분야의 대표적 연구로는 홍성우, 『박사학위논문』조선시대 봉수대와 봉수군 연구, 창원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2021.
16) 『중종실록』 27년 9월 25일(경오)조.
17) 원적산봉수대 보존회, 『양산원적산봉수대 정밀지표조사보고(경남 양산시 상북면)』, 1991.

『여지도서(1760)』에 삼가현 금성봉수와 함께 위천봉수대 운영에 필요한 각종 시설 및 비치물목이 기록되어 있는데, 위천봉수에는 연대(烟臺) 1개소에 연굴(煙窟)이 5개, 망덕 1개, 와가(瓦家)와 고사(庫舍)가 각 2개(칸)가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봉수대의 조사결과가 세종 29년(1447) 3월에 정해진 '내지봉수(복리봉화)'의 규정 및 『여지도서(1760)』의 봉수 비치물목과 대체로 일치함을 알 수 있어 내지봉수를 이해하는 첫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불을 피운 곳으로 추정되는 유구는 한 개로서 이것이 연대의 화덕인 것 같은데 연굴이 5개가 있었다는 기록은 봉수조사에 있어서 초보였던 나로서는 점점 궁금증이 더해갔다. 야밤에 혼자 지프를 몰고 봉수대에 올라 대응봉수 쪽의 불빛이 보이면서도 살피었으나 당시에도 아득히 먼 계명산봉수대 쪽에서 오는 불빛이나 연기의 수를 확인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조사 후 조사결과를 토대로 1개의 연대에 굴뚝 5개가 배치된 것으로 복원되었으나 굴뚝 배치의 장축방향이 차기봉수에서 볼 때 일직선을 이루고 있어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또한 방호벽 내 건물지 사이와의 빈 공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성남 천림산봉수처럼 이 공간에 4개의 연조가 더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 양산 위천봉수대의 조사를 계기로 이후 부산지역의 봉수대 현장을 답사하게 되었다. 부산지역 봉수대는 1976년 개항 100주년을 맞이하여 군부대와 함께 6개의 봉수대가 이미 복원된 상태였다. 그러나 수소문한 결과 황령산봉수대와 계명산봉수대는 시굴갱 조사를 하였지만 조사기록도 찾을 수 없고 나머지 봉수도 일률적으로 원형의 화덕과 방호벽만 복원되어 버린



가덕도 천성보봉수대 연대 전경

이 조사에서 연대 내부에 연기를 피우기 위한 연소실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이전에 사천 각산봉수대 정밀 지표조사 때에 보았던 북쪽으로 통로가 난 사각형의 연소실과 남쪽 외부로 통하는 공기조절구로 추정되는 50×60cm의 사각형의 구멍, 건물지 등을 확인하면서(사진 4-5) 봉수대의 내부 연소실 구조가 원형뿐만 아니고 사각형의 경우도 있다는 새로운 사실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연변봉수의 구조에 대해 보다 확실히 이해할 수 있는 계기는 1997년 12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후에도 여전히 머릿속에 맴도는 생각은 신호의 방법이었다. 당시까지 부산과 경남지역에서 조사된 연변봉수대¹⁸⁾의 경우 방호벽 내에 원형 또는 사각형의 연대 하나만 잔존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유사시 5개의 신호를 어떻게 보내었는지 의문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봉수대에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표 2>의 봉수대 비치물목을 보더라도 대다수의 물품의 개수가 5개 단위 또는 그 배수인 것이 시사하는 바가 커서 유적에서 그것이 어떻게 확인되느냐가 관건이었다. 나에게 또다시 기회가 온 것은 1994년 8월이었다. 가덕도(加德島) 내의 가장 높은 해발 459.4m 연대산 정상에 위치하고 있는 가덕도 연대산봉수대를 정밀 지표조사¹⁹⁾하게 되었다. 이 봉수는 남쪽으로 대마도를 감시하고, 북쪽으로 김해 성화례봉수(省火禮烽燧)로 전달하는 동래 한성간 제 2거의 간봉 노선과 간봉 8노선의 시발점에 해당되는 봉수이다. 한참 더웠던 한여름에 4일간을 오르내리며 조사한 결과 동서직경 약 8.5m, 남북직경 약 9m, 바닥에 내경 약 2m의 연소실과 잔존높이 약 1m의 평면 원형연대가 확인되었다. 그리고 남쪽 추정 건물지 외곽으로 방호벽으로 추정되는 3~4단의 석축이 잔존하고 있음도 확인하였다(사진 2-3). 조사가 끝난 후 조사 결과를 토대로 연대와 건물지 사이 빈 공간에 북쪽으로 화구(火口)를 둔 기단 3단, 높이 6.2m의 원형연대가 복원되었다. 조사된 연대 위에 바로 복원하지 않은 것은 향후 인근 지역 봉수대의 조사결과를 기다려 보다 정확한 고증자료를 봉수대 복원에 반영하기 위한 조치였다.



가덕도 천성보봉수대 연대 연소실 근경

월 기장 아이봉수대(阿爾烽燧臺)에 대한 시굴조사²⁰⁾와 2001년 7월 봉수대 내 건물지에 확인을 위한 발굴조사²¹⁾를 통해서였다. 동래-한성간 제 2로 노선 중 부산 해운대의 간비오산봉수대(干飛鳥山烽燧臺)에서 시작되어 직봉인 안동 봉지산봉수대(峰枝山烽燧臺)로 연결되는 간봉 1노선 봉수이다. 임을랑포봉수대(林乙郎浦烽燧臺)에서 신호를 받다가 임을랑포가 폐지된 후부터는 기장의 남산봉수대(南山烽燧臺)에서 신호를 받아 북쪽으로 울산 이길봉수대(爾吉烽燧臺)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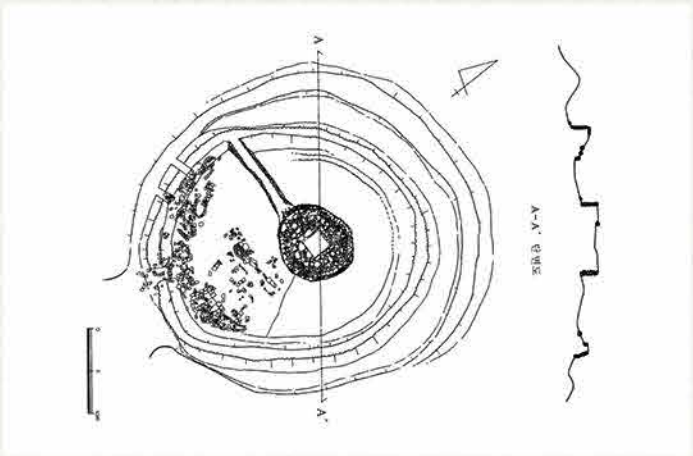
사천 각산봉수대 연대 전경



사천 각산봉수대 건물지



기장 아이봉수대 전경



기장 아이봉수대 평면 및 단면도

봉수대는 중앙의 연대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직경이 약 30m가량인 환상(環狀)의 석축의 방호벽과 그 외곽으로 호(壕)가 둘러쌓여 있는 구조였다(사진 6-도면 2). 중앙에 있는 연대의 평면구조는 북동-남서 방향으로 약간 긴 타원형이며, 직경 약 880cm, 석축 높이 약 2m 정도로 5단의 석축이 잔존하였다. 읍성의 성벽 축조수법과 같이 연대 기저부에 지대석을 깔고 그 위에 약 20cm 정도 안으로 기단석을 들여 쌓은 형태이다. 지표에서 약 180cm 높이까지 돌로 뒤채움 한 연대 상부에서 1단석까지 남아 있는 한 변이 270cm인 방형구획이 확인되어 연소실로 추정하였고 화구(火口)를 포함한 연대의 상부석축은 오래 전에 훼손된 것으로 보였다(사진 7). 서쪽 방호벽에서는 서생면 이길봉수대에서도 같이 연대와 연결된 후대의 것으로 보이는 너비 100cm 전후의 석축 추정 오름시설이 방호벽 상부로 연결

되어 있었다. 연대의 동서직경이 남북직경보다 커 서쪽 벽에는 타 지역에서 확인되는 나선형의 계단식 오름시설이 존재하였을 것으로도 추정되었다. 연대의 서쪽에서 남쪽에 이르는 방호벽 안에서 방호벽에 붙어 상하로 중복된 건물지가 조사되었다. 상부 건물지는 2개의 실이 확인되는데 각 실의 규모는 대체로 가로 240~260cm, 세로 220~260cm로 사람이 기거하기에는 공간이 좁아 봉수의 비품을 보관하는 고사(庫舍)로 추정하였다. 하부 건물지는 가로 550cm, 세로 360cm 규모의 서남향 건물이 있었던 것으로 봉군의 숙소로 추정하였다(사진 8). 한편 외곽에 둘러져 있는 방호벽의 너비는 150~250cm, 잔존 높이는 지형에 따라 100~250cm이다. 방호벽의 내부에서는 유사시 투석용 무기로 보이는 주먹크기의 몽돌이 다수 확인되었다. 호는 비교적 경사가 급한 남쪽은 담장과 5m 이상 떨어져 자연호를 이루고 있었다.

18) 나동욱, 『경남지역의 봉수』, 『울산관방유적(봉수)』, 울산문화재보존회, 2003.

나동욱, 『부산·경남지역의 봉수』, 『울산지역 봉수체계와 천내봉수대의 보존방안』, 울산과학대학건설환경연구소, 2004.

19) 나동욱, 『강서구 천가동 연대산봉수대 지표조사』, 『박물관 연구논집』, 부산광역시립박물관, 1995.

20) 부산광역시립박물관, 기장군 효암리 이길봉수대 시굴조사, 1999.

21) 부산박물관, 『기장군 효암리 이길봉수대』, 2004.



아이봉수대 연대 상부 연소실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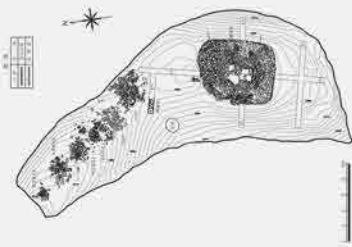
아이봉수대 건물지 근경

호가 가장 잘 남아 있는 서쪽 방호벽 아래 약 60cm에서 원래 호의 바닥이 조사되었는데 바닥 너비는 200cm이고, 방호벽에서 호의 바깥 둔덕까지는 약 260cm이다. 남쪽 방호벽 일부가 절개되어 있었는데 방호벽과 직교되는 너비 80~90cm의 1단의 석렬이 확인되어 문자로 추정하였다. 전체적으로 건물의 확장배치와 더불어 여러 차례 방호벽의 보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조선 전기의 분청사기편 뿐만 아니라 조선 후기의 백자편도 출토되어 조선시대 전 기간에 걸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아이봉수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아이봉수가 이길봉수대로 잘못 명명된 사실을 밝히게 되었고²²⁾, 당시 나사봉수대로 알려진 이길봉수대(사진 9)를 조사하면서 아이봉수대와 구조가 동일하며 울산지역 봉수대를 조사, 연구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아이봉수대의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여지도서(1765)』등 조선시대 회화식 지도류에서 봉수대의 연대, 연조, 기와집 등의 모습이 그려진 것에 착안하여 각지 봉수대의 기본적인 시설은 문헌에서와 같이 기와집으로 표현된 가가(假家)와 원통형의 연대 또는 연조가 일반적이었고, 연대를 표현함에 있어서는 촛불형, 성곽형, 불꽃형, 깃발형 등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표 4).

따라서 아이봉수대의 발굴조사를 통하여 연변봉수의 기본적인 시설과 연대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었고, 세종 29년(1447) 3월 '연변연대조축지식(沿邊煙臺造築之式)'의 내용과 대체로 일치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아이봉수대 시·발굴조사 역시 양산 원적산봉수대 조사 때 품었던 의문 중에 하나인 방호벽 내 연대는 한 개만 있는데 위급 시 5거를 올릴 수 있는 시설이 확인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러한 의문은 내지봉수인 창녕 여통산봉수대(사진 10·11)²³⁾와 거제 강망산봉수대(사진 11·도면 3), 기장 남산봉수대(사진 13)²⁴⁾가 시굴 또는 발굴조사²⁵⁾되면서 서서히 의문이 풀리게 되었다.



거제 강망산봉수대



거제 강망산봉수대 평면도



가을산 이길봉수대 전경



창녕 여통산봉수대 전경



기장 남산봉수대 전경

22) 부산박물관, 『機張郡 李岩里 爾吉烽臺』 발굴조사보고서, 2004.8.

울주문화원, 『서생 나사봉수대 명칭변경에 관한 학술세미나』, 2000.9.4.

23) 주)통문·재)우리문화재연구원, 『창녕골프장 예정부지 내 창녕 여통산 봉수대 유적』, 2007.

24) 기장군·재)울산문화재연구원, 『기장 남산봉수대-1차 발굴조사』, 2013.

25) 재)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재)시, 『거제 강망산봉수대 문화유적 시굴조사 보고서』, 2007.4.

그중 거제 강망산봉수는 동래 한성간 제2로 노선 중 간봉 2노선의 거제 계룡산봉수로 연결되거나 영진에 연락하는 권설봉수로 추정하고 있다. 강망산봉수대 시굴조사에서 장축 1,500cm, 단축 1,230cm, 잔존 높이 380cm 규모의 말각방형상의 연대가 확인되었으며 연조 4~5기가 조사되었다. 특히 연대 중심부에서는 남북 장축 455cm, 동서 단축 240cm, 잔존 깊이 190cm 규모의 평면‘ㅁ자’형태의 연소실 유구가 확인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대에서 확인된 연대 상부로 오르는 오름시설은 확인되지 않았다. 안타깝게도 연소실 서북벽 토축으로 메워진 부분이 조사되지 않아 화구의 가능성 또는 오름시설과의 관계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결과와 전혀 다르게 복원되고 말았다(사진 12). 다만 연대로부터 북서쪽으로 약 22m지점에서 능선방향으로 150~230cm×145~290cm 규모의 연조 4기 또는 5기가 평균거리 503cm 간격으로 확인되어 연변봉수에서도 5거를 올리기 위한 연조가 있었음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조사에서 연대 주변 어딘가에 연조가 있었는데 내지봉수의 연조처럼 연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작아 후대에 인위적으로 멸실되었거나 그 흔적이 미미하여 조사과정에서 간과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러한 조사 성과는 봉수대에 대한 지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과거의 연구 경향이나 부분적인 시·발굴조사를 통하여 확인된 성과만으로 선부분 복원을 추진함으로써 원형을 훼손하는 사례에 대해 재고하는 계기가 되었다.



거제 강망산봉수대 복원 연대

3. 봉수유적의 사적추진 및 문화재청과 지자체 협업

현재의 봉수유적은 일부만이 시·도지정 문화재로 관리되고 있을 뿐 대부분의 유적들은 법적 제도적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방치된 경우가 많다. 최근 복원을 전제로 한 봉수대 중에는 고고학적 학술 조사가 실시되었지만 조사원의 봉수대의 구조와 형태 등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도리어 유구의 원형을 훼손시킨 경우도 있다. 또한 제대로 된 고증 없이 정비 및 복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문화재적 가치를 퇴색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였다.

이에 문화재청은 고대로부터 국가 중요 군사 통신시설이었던 봉수의 역사적·문화재적 가치 조명과 봉수유적의 실효적 보존·관리 및 활용 기반 마련을 위하여 개별 봉수유적에 대한 문화재 지정 등 제도적 보호체계 안으로 편입할 필요가 있음을 절감하여 조사연구 영역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구체적인 과업 내용은 봉수유적의 기본 현황을 파악, 비교적 잔존상태가 양호하면서 역사·민속적 가치가 우수한 봉수유적을 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한 기준 방안 마련, 향후 지자체와 협업하여 봉수유적의 보존, 관리 및 통합관리 대책 마련, 구체적인 문화재적 가치와 활용방안 제시 등이다. 더하여 봉수유적에 대한 추가 심화 연구 및 지자체가 문화재(사적 등) 지정요청 시 필요한 자료보고서 작성으로 문화재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에 문화재 지정 가능성 및 보존 관리를 위한 객관적인 설명자료의 확보, 봉수유적 관리를 위한 학술행사 추진 등이다. 이에 따라 2015년 기초조사²⁶⁾에 이어 2016년 심화조사²⁷⁾가 실시되었다. 또한 2021년 제2로 직봉 봉수유적²⁸⁾과 2022년 제5로 직봉 봉수유적²⁹⁾의 문화재(사적 등) 지정을 위한 조사 연구영역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각각의 학술대회³⁰⁾가 개최되었고, 노선별로 각각 2권의 조사연구보고서가 출간되었다. 몇 안되는 봉수전문가들이 동분서주하면서 발로 뛰고 머리로 써내려간 연구성과를 볼 때마다 성곽연구자로서 지난동안 본인이 발굴조사 한 봉수유적은 제대로 조사하고, 연구하여 객관적으로 보고서를 기술하였는가에 대해 무한한 책임을 느끼고 있다.

26) 문화재청, 『전국 봉수유적 기초학술조사』, 2015.

27) 문화재청, 『전국 봉수유적 심화학술조사』, 2016.

28) 문화재청, 『봉수유적 문화재(사적 등)지정을 위한 조사연구보고서』 I·II, 2021.

29) 문화재청, 『봉수유적 문화재(사적 등)지정을 위한 조사연구보고서(제5로 직봉)』 I·II, 2022.

30) 문화재청·한국문화유산연구원 『조선시대 국난극복의 통신유적 봉수』, 2022.12. 문화재청·한국성곽학회, 『조선시대 통신체제의 원형·봉수』, 2021.11.



표 4. 『여지도서(1765)』에서 보이는 각지 봉수대의 표기 사례



성남 천림산 봉수대 전체 평면도

성남 천림산 봉수대 발굴전경



용인 석성봉수대 평면도

단양 소이산봉수대 평면도

제천 오현봉수대 평면도

영천 여음동봉수대 평면도



용인 석성봉수대 연조

단양 소이산봉수대 전경

제천 오현봉수대 전경

영천 성산봉수대 평면도

표 5. 제2로 사적지정 봉수대의 평면도 및 사진

다행히 문화재청이 나서서 봉수의 남북한 공동조사는 물론 세계문화유산 등재의 원대한 꿈을 가지고 지자체와 협업하고자 사적지정에 주도적으로 나선 것은 이 분야 연구자의 한사람으로서 큰 보람을 느끼게 한다.

더욱이 공직퇴임을 앞둔 2022년 5월과 7월에 걸쳐 사적지정이 신청된 제2로 봉수유적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가 및 문화재위원들로 구성된 현장실사단에 참여하게 되었다. 2023년 6월에도 현장실사단에 참여하여 제5로의 주요 봉수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은 나에게 또 다른 행운이었다.

사적으로 신청된 제2로 봉수 현장조사(표 2)에서 대부분의 봉수대는 타원형의 석축 방호벽 내에 주거지와 연조의 흔적이 확인되며, 특이하게 단양 소이산봉수 등에서와 같이 연대가 확인되는 곳도 있다. 봉수대의 방호벽 중에는 양산 원적산봉수(위천봉수)가 가장 양호하게 남아 정비되었고, 특히 성남 천림산봉수의 경우 발굴조사에서 5개의 연조와 건물지 등이 확인되어 내지봉수 시설로서 문헌 기록에 부합하는 유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성남 천림산 봉수대는 동서 길이 33.8m, 남북길이 12m, 전체면적 333m²(100평) 규모로 조선시대 봉수 노선 중 동래-한성 간 제2로봉수로 서울 목멱산에 도달하기 직전의 봉수대이다. 발굴조사에 의하여 동서장축의 타원형평면으로 동·남·북 3면석축의 대지 위에 5~7m간격으로 5개소의 연조가 동서방향 일렬로 배치된 것이 확인되었다. 그 외 방화벽 3개소, 담장지 2개소, 출입시설 1개소, 건물지 1개소, 창고터 2개소가 확인되었다. 그중 연조는 내외벽의 이중구조로 기저부 직경 3m내의 방형석축의 안쪽으로는 할석으로 원형의 빈 공간을 조성하였는데 상부로 올라가면서 좁혀 가면서 축조한 형태이다. 조사결과를 토대로 1기의 연조는 발굴된 원형대로 보존하고 4기의 연조가 복원되었다.

성남 천림산봉수와와의 특별한 인연은 2019년 8월 15일과 16일에 걸쳐 봉수박사 김주홍, 홍형우, 박영익선생과 함께 복원한 연조에서 연기를 올리는 실험을 하게 되면서다. 당시 성남천림산봉수 복원정비공사 준공식에 봉수시연이 예정되어 있어 담당인 성남시청 조수현 학예연구사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다. 조수현선생이 마른 쑥·생쑥·솔가지·소똥·생석화·숯은 물론 동물원에서 이리 똥까지 준비하여 두었다. 여러 재료를 혼합하여 연기를 올려본 결과 쑥과 생솔가지가 가장 효과적이었다. 기대와는 달리 연기가 똑바로 올라간다는 이리 똥은 냄새만 고약했지 잘 타지 않아 고생하였다. 그리고 주민들로 구성된 해설사들과 봉수군역할을 맡은 분들께 약간의 교육과 함께 불 피우는 노하우를 전하였다. 바야흐로 9월 24일 오후 2시 성남천림산봉수 복원정비공사 준공식에서 연기가 제대로 올라간 것을 TV로 보면서 흐뭇해하던 기억이 새롭다(사진 14).



복원된 성남 천림산봉수대에서의 연기 실험

현재까지 조사된 내지봉수는 제5로의 화성 흥천산봉수, 화성 염불산봉수, 시흥 정왕산봉수 등과 같이 대체로 내륙의 산능선 상에 위치하여 차기 봉수대에서 충분히 조망할 수 있도록 연조로 추정되는 5개의 시설이 능선을 따라 배치된 경우가 있어 내지봉수의 경우 적어도 중앙에 가까울수록 5개의 연조를 기본적으로 설치하였을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조선시대 봉수 노선중 제 1거인 경흥-한성간 노선 중 경성읍성을 중심으로 한 동북방봉수의 시설물 연구³¹⁾를 통하여 보면 연조의 배치에 있어서 직봉에 속하는 봉수는 연조가 5개, 간봉은 3개, 보조봉수에는 1개로 연조의 숫자가 서로 달랐다고 한다. 따라서 내지봉수의 연조의 수는 지역이나, 기능에 따라 달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표 6. 제5로 사적지정 신청 봉수대의 평면도 및 사진

31) 리영민, 「경성읍성을 중심으로 한 동북방 봉수체계와 그 시설물」, 『조선고고연구』 1992~1995

연조의 형태에 있어서는 밑에서부터 위로 가면서 점차 좁히다가 아구리 부분은 밑단의 1/3이 되게 쌓아 올려 불과 연기의 분산을 막았다고 한다. 또한 연조의 평균 규격은 밑단이 2~3m, 높이 0.7~1.5m, 윗부분 둘레 0.5~1m이며, 밑단에서 30~40cm 위에 40×40cm되게 화구를 설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연조의 간격에 있어 봉수 상호거리에 따라 1.5~2m(대응거리 2~4km일 때), 3~4m(대응거리 5~6km일 때), 5~6m(대응거리 7~8km일 때), 7~10m(대응거리 9~10km일 때) 간격으로 설치되었다. 또한 봉수대의 규모에 따라 동서 25m 규모이고 차기 봉수 사이의 거리가 5~6km일 때 4m 간격, 규모가 동서 12m이고, 차기 봉수사이의 거리가 2~4km일 때 2m 간격으로 조사되어 내지봉수의 구조 및 연조의 복원과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발굴된 성남 천림산 봉수 연조의 밑단 크기와 동일한 양상을 보이고 있어 연조 구조의 동일성이 인정된다.

사적으로 신청된 제5로 봉수조사(표 6)에서는 대부분의 봉수대에서 연대가 확인되고 있으며, 강화 망산 봉수대의 경우 산정부의 서쪽 높은 곳에 연대 1기와 동쪽 낮은 곳에 원형의 석축 연조 5기가 동-서 1열로 배치되어 있다. 2010년의 발굴조사를 통해 연대의 동쪽 제5연조와 인접하여 남-북으로 방호벽 일부와 추정 고사지(庫舍址)가 확인되었다. 연대는 자연석 화강암을 이용하여 남북 직경 8.5m, 동서 직경 8m, 하부 둘레 31.9m로 90×30cm, 60×20cm, 140×40cm 가량의 장방형 석재를 4단으로 쌓아 올렸다. 높이는 동쪽 0.8m, 서쪽 1.1m, 남쪽 1.1m, 북쪽 0.4m로 정방형 기반부 위에 중간 둘레 10.6m, 총 높이 3.9m의 원추형 돌담 형태이다.

한편, 연대의 하단부에 서쪽에서 동쪽으로 낮아지는 지형을 따라 원형 석축 5기의 연조가 일정 거리를 두고 1열로 배치되어 있다. 제일 상부 서쪽으로부터 제1연조는 원형의 석축으로 남북 직경 2.8m, 동서 직경 2.8m, 제2연조는 원형의 석축으로 남북 직경 3.1m, 동서 직경 3.8m, 높이 0.9m이며, 1·2연조간 거리는 6.3m이다. 제3연조는 원형의 석축으로 남북 직경 2.3m, 동서 직경 2.7m, 높이 0.9m로 2·3연조간 거리는 5.1m이다. 제4연조는 원형의 석축으로 남북 직경 2.7m, 동서 직경 2.9m로 높이 0.6m이며, 3·4연조간 거리는 7.4m이다. 제5연조는 원형의 석축으로 남북 직경 2.7m, 동서 직경 2.9m로 잔존 높이 70cm이며, 4·5연조간 거리는 6.4m이다.

제4·5연조 남측의 소규모 평탄지를 고사지(庫舍址)로 추정하고 있으며, 남측 방호벽 길이 8m, 북측 방호벽 길이 7m 정도가 확인되었다. 잔존 너비는 1~1.3m 정도이다. 2011년의 발굴조사를 통해 백자·분청자도 가·숫돌편 등과 암·수키와편 등 총 53점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이와 유사한 형태의 봉수로는 화성 염불산봉수가 있으며 산 정상상의 능선상 서쪽 제일 높은 곳에 1기의 연대와 5기의 토·석 혼축 연조가 설치되어 있다.

이와 같이 제2로와 제5로 봉수노선상 비교적 잔존상태가 양호한 봉수를 둘러본 결과 해안가를 중심으로 한 연변봉수는 연대 설치가 기본이고 강화 망산봉수처럼 연조가 5개 설치된 봉수가 있는 반면 2~3개만이 조사된 봉수대도 있다.

내지봉수는 기본적으로 방호벽과 건물지는 대부분 확인되며 영천 여음동봉수대나 단양 소이산봉수대처럼 방호벽 내에 연대가 확인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천림산봉수나 창녕 여통산봉수처럼 연조가 5개 확인되는 경우보다는 연조가 잔존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연변봉수나 내지봉수는 봉수대의 비치물목이나 문헌에서 보이는 신호방법 상으로는 반드시 5거를 올릴 수 있는 설비를 갖추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대응봉수에서의 식별 가능여부와 관련 앞으로의 발굴조사 성과가 기다려진다.

4. 정비·복원관련 앞으로의 과제

고대의 군사통신으로서 우리나라 봉수의 기원은 기록상 삼국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으로 고려, 조선시대를 거쳐 근대까지 오랜 기간 동안 그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이러한 500년 이상의 역사성을 가진 봉수대의 가치는 무한한 것으로 외침이 심한 우리민족의 역사와 늘 함께 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다만 전달하는 정보 자체의 단순, 모호성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근대적 통신에 밀려 지금은 사라지고 그 흔적만 남아 있지만 당시에는 왜적의 침입을 신속히 알리는 통신수단으로 성곽과 더불어 변경의 주민의 안위와 국가 방비의 근간이 되어 왔다.

한때 지방자치체를 중심으로 주민의 단결, 화합을 위한 구심점으로서, 관광자원의 개발이라는 차원에서 봉수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부실한 지표조사 결과와 기록상의 내용만을 근거로 복원이 시도되기도 하였고, 수원화성의 봉수대나 연변봉수를 모델의 전형으로 해당봉수의 지형학적 여건과 봉수의 구조적 특성이 무시된 채 봉수의 복원이 이루어져 왔다.

최근 각지에서 직봉 및 간봉노선에 해당되는 봉수대에 대한 학술조사가 증가되면서 봉수대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복원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모색되고 있는 실정이다. 봉수대에 대한 발굴조사가 이루어져도 잔존상태가 불량하여 조사단이나 학계에서도조차 봉수대의 윤곽을 그려내기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다. 특히 연변봉수의 연대 상부구조와 연조의 배치는 자주 인용되는 추정조감도처럼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지금까지 사·발굴조사 결과를 보아 왔듯이 그러한 사례가 확인되었는지 그리고 대응봉수를 기준으로 볼 때, 그러한 배치로 신호가 구분이 가능한지 등 객관적인 증거가 바탕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봉수자체를 전공하는 연구자의 부족 탓도 있겠지만 봉수대조사가 가지는 조사 사례가 많지 않고, 지형적인 요인과 무분별한 훼손으로 잔존상태가 불량한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봉수대 정비·복원은 예산확보를 통한 시굴조사나 발굴조사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기초로 유사한 사례들을 충분히 비교·검토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조사와 정비·복원과정에 있어서는 고고학 전공자는 물론 필요하다면 지형학, 건축학, 생태학, 기상학 관련 연구자의 참여와 조언을 통해 종합적인 해석과 합리적인 정비방안 모색이 절실하다. 나아가 조사결과를 토대로 봉수유적에 대한 종합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인근 주민에게는 편안한 휴식처로서, 외지 탐방객들에게는 주변 지역 역사문화 관광자산과 연계한 국난극복의 교육장으로서 조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 문화재청에서 봉수유적의 사적지정에 적극적인 노력을 보이고 있을 때 지자체 담당자들도 적극 나서서 애향심과 지역민의 구심점으로 봉수대의 보존과 정비, 그리고 적극적인 활용방안 모색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지역주민이 주체가 될 때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로 지자체의 문화재 보존과 정비·복원사업에 탄력을 받을 것이다. 나아가 봉수대유적이 지역개발과 사유재산 침해의 애물단지로부터 주민과 지역사회에 이득이 되는 적극적인 역사문화 관광자산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봉수유적은 남북이 협력하여 가꿔 나갈 공동 역사문화자산이면서 전 세계 인류가 아끼고 사랑해야 할 귀중한 역사문화유산이다. 적극적인 보존과 활용을 연계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질 필요가 있다.

Part. 08

문화유산 특별기고

엘긴경의 대리석상 | 43

쇼베동굴(Grotte Chauvet-Pont d'Arc)의 보존 | 46

엘긴경의 대리석상 (주)현창문화재기술단 | 오규성

세 번째 이야기 몰락의 시작

엘긴경은 순식간에 몰락했다. 개인적으로는 부인과 이혼하면서 막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했으며, 외부적으로는 프랑스 당국으로부터 풀려나는 조건으로 인해 더 이상 공적인 직책을 수행하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다. 결국 귀족이었던 그는 개인 사업을 통해 돌파구를 찾았다.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았던 엘긴경은 자신이 그리스에서 확보한 조각상들을 일반 대중을 상대로 공개하기로 마음 먹었다. 사실 엘긴경은 이 조각상들을 자신의 집인 브룸홀을 장식하는 데에 사용하려고도 생각했었으나 이는 이제 더 이상 고려 대상이 되지 않았다. 또 한편으로는 이 조각상들을 영국 정부에 기증하여 그의 사회적 공헌도도 빛내고 그 대가로 공직을 제의 받으려고도 했으나 이 또한 넉넉지 않았던 그의 주머니 사정과 프랑스와의 약속으로 인해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그는 그리스에서 조각상들을 가져오기 위해 많은 빚을 진 상태에서 추가로 빚을 더 내 런던의 피카델리가에 창고를 짓고 그 안에 조각상들을 보관하였다. 이 창고는 결국 대중에게 조각상들을 공개하는 장소가 되었다.

다행히도 엘긴경의 조각상 공개 행사는 매우 성공적이었다. 일반 영국 대중은 고대 그리스의 예술품을 가까이에서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존에 예술을 대하는 그들의 관념을 깨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스의 조각상을 대하기 전 영국 사람들은 예술품이란 고대 로마시대에 만들어진 조각상처럼 고전적인 아름다움과 비례를 갖춘 말끔한 모습이어야 한다는 인식이 깔려 있었다. 그러나 엘긴경의 조각상들은 그들의 관념을 완전히 깨는 것들이었다. 그들의 눈앞에 놓인 고대 그리스 조각상들은 매우 역동적이고 거친 모습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정제된 자세와 균형미를 자랑하던 로마 시대의 조각상들에 익숙해져 있었던 영국 대중에게 활동적이고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듯한 자세를 취한 고대 그리스 조각상들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감동과 충격을 선사해 주었다.

반면 일부 예술 감정사들은 엘긴의 조각상들에 대해 박한 평가를 내리기도 하였다. 그들은 때문고 관리 상태가 열악한 이 조각상들에 대해 높은 점수를 주지 않았으며 심지어 엘긴경이 사기를 당해 그가 가져온 것은 고대 그리스의 조각상이 아니고 로마시대에 만든 조각상이라는 주장까지 하였다.

이러한 비판은 그나마 엘긴경의 조각상에 대한 것들이었지만 그를 더 힘들게 했던 것은 엘긴경 개인에 대한 비난이었다. 이 비난은 조지 고든 바이런(George Gordon Byron) 남작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그는 1809년 22세의 나이에 아테네를 방문하여 엘긴경이 조각상을 뜯어간 아크로폴리스 현장을 직접 목격했다. 이를 본 바이런 남작은 엘긴경을 자랑스러운 고대 그리스의 문명과 문화를 파괴시킨 문화 약탈자라고 맹비난하였다. 바이런 남작은 심지어 엘긴경을 비난하는 시를 지어 1812년에 출간까지 했다. 이렇게 엘긴경을 비난한 사람은 바이런 남작뿐만이 아니었다.

이와 같은 공격과 자금난에 지친 엘긴경은 이 조각상들을 영국 정부에 팔려고 했다. 그는 조각상을 통해 이익을 남기지 않고 그가 조각상들을 영국까지 반입하는 데 소요된 비용만 받아도 만족한다는 조건을 걸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영국 정부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엘긴경이 그리스에서 조각상을 가져온 사실에 대해서는 의심치 않았지만 엘긴경의 구매 요청이 있었던 시기는 대략 1815년경으로 이때는 영국을 포함한 유럽 동맹군과 나폴레옹이 워털루 전투를 치렀던 시기와 겹쳤던 것이다. 이러한 급박한 대외정세로 인해 영국 정부는 엘긴경의 구매 요청을 뒷전으로 미뤘던 것이다. 게다가 영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엘긴경이 팔려고 하는 이 조각상들의 취득 경로가 합법적이었는지, 또 조각상들에 대한 예술적 가치가 어느 정도 인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었다.

결국 1816년 영국 의회는 특별 위원회를 구성하여 이 문제를 살펴보기로 했다. 위원회는 엘긴경을 포함한 관련자들을 모두 소환해 조각상들에 대한 취득 경로와 예술적 가치를 집중적으로 파헤쳤다. 취득 경로에 대한 주요 쟁점은 합법적 행위의 범위와 주체에 대한 것이었다. 행위의 범위는 벽체에서 조각상을 제거하는 것도 오스만 제국이 정식으로 허가해 준 것이냐는 것이었으며, 행위의 주체는 허가를 내준 대상이 엘긴경 개인에게 내준 것인지 아니면 오스만 제국에 부임한 영국 대사에게 공식적으로 내준 것인지를 따졌다.

엘긴경의 답변은 모호했지만 그가 받아낸 허가는 벽체에서 조각상을 제거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었고 또 그가 허가받은 것은 개인으로서 받은 것이지 자신의 대사직을 보고 내준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위원회에는 그의 조수 자격으로 조각상 취득 과정에 참여했던 헨트도 소환되었는데 그는 엘긴경과는 다른 주장을 했다. 우선 헨트는 작업의 범위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었다. 그러나 허가를 받은 사람의 자격에 대해서는 정반대의 주장을 펼쳤다. 엘긴경이 허가를 받은 것은 그가 영국 대사로 콘스탄티노플에 부임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지 개인에게 오스만 제국이 그러한 허가를 내주었을 리는 만무했다는 것이다. 위원회로부터 소환되었을 당시 엘긴경과 헨트의 관계는 이미 틀어져 있었기 때문에 헨트의 주장을 전적으로 믿을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를 오스만 제국이 개인에게 허가를 해줬을 리는 만무하다는 것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엘긴경이 조각상들에 대한 취득 허가를 받아냈을 때의 상황을 돌이켜 보면 오스만 제국은 영국이 이집트에서 프랑스군을 몰아 내준 것에 대한 고마움으로 허가를 내주었다. 이러한 배경을 보면 엘긴경이 개인의 자격으로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 조각상들을 가져가는 것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은 아니었을 확률이 더 높아 보인다. 반면 엘긴경의 입장도 이해할 만하다. 만약 대사직으로 받은 허가로 판명 날 경우 이는 오스만 제국이 영국에게 공식적으로 내준 것이 되므로 조각상들에 대한 소유권은 이미 정부에게 있는 것이라고 결론이 날 지도 모를 노릇이었다. 그렇게 되면 엘긴경은 한 톨도 받지 못하는 처지에 놓이기 때문에 그는 개인의 자격으로 받아낸 허가라고 끝까지 주장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실제로 조각상을 취득하기 위한 비용은 모두 엘긴경의 개인 주머니에서 지급되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이 조각상들에 대한 예술적 가치에 대한 평가도 이루어졌다. 이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여러 명의 예술가들을 소환하여 그들의 의견을 청취했는데 대부분 엘긴경의 조각상들에 대해 매우 긍정적이고 호의적인 평가를 내렸다. 물론 엘긴경의 조각상들에 대해 평가절하 하는 의견도 있었으나 이는 일부에 속해 반영되지 않았다.

2주 간의 활동을 끝으로 위원회는 결론을 내렸는데 그 결론은 엘긴경에게 유리한 것이었다. 위원회의 결론은 조각상들이 합법적인 방법으로 획득한 것이고, 엘긴경 개인 활동에 의한 결과였으며, 조각상들의 예술적 가치도 매우 높다는 것이었다. 모두 엘긴경이 바라던 대로였다. 그러나 결론 중에는 엘긴경을 실망시킨 내용도 있었다. 그것은 훨씬 더 현실적인 문제였다. 위원회는 영국 정부가 엘긴경으로부터 조각상들을 취득하기 위해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35,000파운드를 제시했던 것이다. 이는 엘긴경이



1. 대영박물관의 임시 엘긴경 방(1819년, 아카볼드 아처)

요구한 금액의 절반 밖에 되지 않는 금액이었다. 금액에 대한 실망이 매우 컸으나 엘긴경은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1816년에 엘긴경의 대리석상들은 대영박물관으로 인계되었다. 이후 엘긴경의 대리석상은 대영박물관의 대표 전시물이 되었고 이후로도 영국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대리석상의 운명과는 달리 엘긴경의 운명은 매우 쓸쓸했다. 위원회 개최 결과 그는 문명 약탈자 또는 파괴자라는 오명은 씻을 수 있게 되었으나 이후 개인적으로 재기는 못했다. 결국 브룸홀드 문을 닫게 되어 그는 집 한구석에 머물면서 말년을 보냈다. 엘긴경은 1841년 파리에서 세상을 떠났다. 그가 죽으면서 후손들에게 남긴 유산은 150,000파운드라는 빛이 전부였다. 이는 현재 기준으로 약 6,500,000파운드(한화 약 104억 원) 이상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다.

엘긴경의 유산

엘긴경의 대리석상은 영국 반입 이후 영국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더군다나 그리스 아테나는 고대 민주주의의 본고장이었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정치 이념을 꽃 피워 나가던 영국인들은 민주주의 전통을 자기들의 잇는다는 자부심을 갖게 하였다. 1816년 대영박물관에 이관한 엘긴경의 대리석상은 평균적으로 일일 천 명의 방문객을 유발시킬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 심지어 1823년에 대영박물관을 설계한 로버트 스머크(Sir Robert Smirke)는 대영박물관을 그리스 리바이벌 양식으로 설계하여 1852년에 완공했을 정도였다. 현재까지 남아있는 대영박물관의 파사드를 보면 파르테논 신전과 매우 흡사하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다. 그 외에도 런던에는 엘긴경이 가져온 에렉테이온 신전의 기둥에 영향을 받아 건립한 건물도 존재하고 있다. 엘긴경의 대리석상은 영국의 건축계 뿐만 아니라 예술계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2. 대영박물관



3. 성 팬크래스 교회(출처:www.Geograph.org.uk)

엘긴경의 대리석상은 국제적으로 영국과 그리스 간의 갈등을 유발하기도 한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그리스의 건국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엘긴경이 파르테논 신전에서 조각상들을 떼어낼 당시에는 그리스라는 국가는 없었다. 그리스는 이미 로마제국이 세력을 확장하는 과정에 기원전 146년부터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기 시작하였다. 이후 그리스는 독립 국가로서의 면모를 보이지 못하다가 1830년 런던 회의에서 그리스의 독립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아 1832년에 나라를 건국하였다. 그리스는 왕조의 형태로 재출범하였는데 바이에른 왕국의 왕자 오토(Otto Friedrich Ludwig von Bayern, 1815~1867년, 재위기간:1832~1862년)가 초대 왕위에 올랐다.

이처럼 근대 그리스는 타국의 왕자가 왕위에 올랐고 국가의 독립성은 영국, 프랑스, 러시아 등의 강대국들이 보장하고 있었다. 즉, 근대 그리스는 독자적으로 내부의 영원에 의해 독립을 쟁취한 것이 아니라 주변 강대국들에 의해 만들어진 나라였다. 그리고 그리스의 국가 영역 확정 시 그 안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국민으로 편입하였다.



4. 오토왕(1833년, 프레드릭 듀크)

기원전 146년에 국권을 상실했다가 거의 2천 년이 경과한 시점에 다시 국가의 모습을 갖추게 된 그리스는 자발적으로 일어난 국가도 아니었기 때문에 국가의 형상을 갖추는 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다. 심지어 국왕마저도 외지인이었기 때문에 나라가 하나로 뭉치기에는 많은 난관이 있었다. 어지러운 내란을 거친 끝에 1843년 오토왕은 겨우 헌법을 승인하였다. 건국 과정으로 봤을 때 1832년에 새로 나라를 세운 근현대 그리스가 당면한 국가적인 과제 중 하나는 국가관을 형성하여 국민들을 통합시키는 것이었을 것이다. 이를 위해 국민들에게 건국의 당위성, 애국심, 자긍심, 연대감 등을 심어줄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그 일환으로 그리스는 약탈당한 그들의 문화유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전략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1835년이 되자 그리스는 영국의 대영박물관 측에 엘긴경이 파르테논 신전과 주변 아크로폴리스 언덕 위에서 떼어간 조각상들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했다. 이에 대해 대영박물관 측은 거절했지만 이는 이후로 이어지는 기나긴 반환 논쟁의 시점이 되었다.

문화유산 담 Vol.6호에 이어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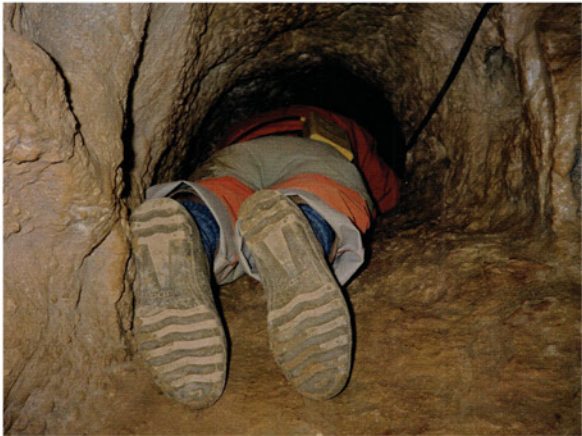


동굴의 발견

1994년 12월 18일, 동굴탐험가인 장-마리 쇼베(Jean-Marie Chauvet)와 그녀의 친구들은¹⁾ 수많은 역경을 뚫고 동굴의 천장으로 이어지는 좁다란 통로를 찾아냈다.(그림1) 간신히 몸만 빠져나오는 기다란 홈통을 통과한 그들은 접이식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 동굴벽을 뒤덮은 그림들을 발견했다. 그리하여 그녀의 이름은 동굴과 함께 길이 남게 되었다.

그로부터 열흘 후 국제과학협의회장인 장 끌로뜨(Jean Clottes)는 론알프지방(Rhone-Alpes) 고고학 학예사인 장-삐에르 다우가(Jean-Pierre Dugas)로부터 동굴발견의 사실과 함께 이에 대한 전문적 평가를 내려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즉시 그곳으로 달려가 동굴탐험가들처럼 험난한 통로를 기어서 통과한 후 사다리를 이용하여 첫 번째 방에 도착했을 때, 장 끌로뜨는 중유석에 반사되는 불빛에 현기증을 느꼈다. 동굴의 아름다움 때문이었다. 수준 높은 다양한 작품들에 대한 경탄으로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커다란 붉은 점들의 벽화에 이어 붉은 색과 검은 색으로 그려진 물소, 매머드, 동굴사자의 그림들이 나타났다. 벽화가 거의 없는 중간의 방을 지나니 판화로 뒤덮인 매우 넓은 공간이 나타났다. 몇몇 벽화들이 위대한 예술작품의 시대를 증언하고 있었다. 특히 눈길을 끈 것은 네 마리 말의 머리와 코뿔소들이 서로 뿔을 맞부딪히고 있는 그림이었다.(그림 2,3) 곰의 뼈들로 뒤덮인 긴 복도를 지나 들어선 마지막 방에는 사자와 물소를 사냥하는 거대한 벽화들이 그려져 있었다. 놀라움과 경이로움의 연속이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몇 달 후 방사성 탄소분석의 결과가 나왔을 때 드러났다. 동굴벽화의 주인공들이 활동한 시기는 무려 30,000~32,000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이었다.²⁾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선사인들의 동굴벽화가 나타난 것이다.³⁾ 라스코(Lascaux) 동굴벽화의 시기가 고작(?) 17,000여년 전으로 알려져 있었으니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었을 지는 불을 보듯 흰한 일이었다.



1. 최초로 발견한 홈통같은 좁은 통로는 고대인들이 원래 사용하던 통로는 아니었다. 그저 동굴의 천장으로 이어지는 구멍이었다.



2. 네 마리 말머리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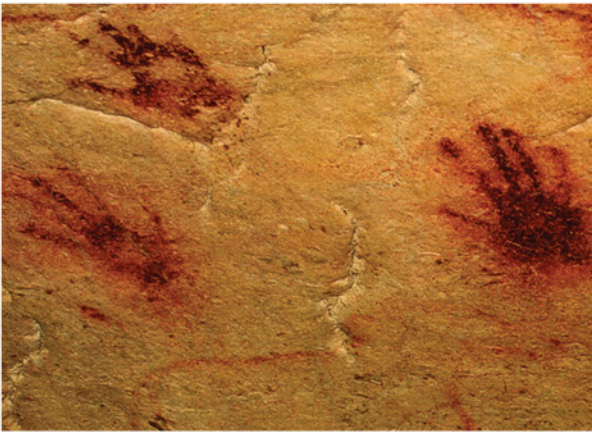


3. 두 마리의 코뿔소가 뿔을 서로 맞부딪치며 힘겨루기를 하는 그림은 말머리그림의 아래 그려져있다.

동굴 안의 작품들

동굴 안의 그림은 지금까지 인류가 접한 적이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보존된 상태였다. 2천여 년 전 좀 동굴입구가 있었던 절벽이 붕괴되면서 입구가 막히는 바람에 외부와 단절된 채 벽화보존에 더 없이 좋은 상태가 유지되어 왔다는 것은 이후의 조사 결과 밝혀진 사실이다. 벽에는 의인화나 동물을 모티프로 한 1천여 점 이상의 다양한 그림들이 그려져 있었는데⁴⁾ 손도장, 발도장 등의 잡다한 것들을 합하면 4천여 점이 넘는다고 한다. 동물들 그림 가운데에는 당시로서 접근하기조차 쉽지 않았을 매머드, 곰, 동굴사자, 물소, 유럽들소와 같은 맹수들의 그림도 포함되어 있었다. 종류도 다양해서 ‘사자, 사슴, 코뿔소, 곰, 말’과 같이 현존하는 동물뿐 아니라 ‘바이손(Bison, 유럽들소), 매머드, 동굴사자, 동굴곰과 같이 지금은 멸종된 동물들의 그림도 있다. 이러한 맹수들은 사냥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숭배의 대상이었다고 한다.

이 시기의 대표적 그림인 ‘손도장’(Hand Stencil)의 양형과 음형그림도 다수 존재했고(그림4,5) 특이한 것으로 화덕(hearth)의 흔적이 발견되었다.



4. 양형의 핸드스텐실은 도장을 찍듯 그려낸다.



5. 음형의 손도장은 손을 바위에 대고 염료를 뿜어내는 방식으로 오늘날과 차이가 없다.

1) Christian Hillaire, Eliette Brunel Deschamps
2) 이 시기의 고대인류는 오리냐크인(Aurignacian)이며 이후 25,000~27,000년의 시기에 또 한 차례 인류가 거주하는데 그라베티안(Gravettian)이라 하는 이들은 거의 그림을 남기지 않았다.
3) 이 기록은 2018년 보르네오에서 호주 그리피스대와 인도네시아 국립고고학연구센터 공동연구팀에 의해 발견된 동굴벽화에 의해 깨진다. 쇼베2처럼 동물과 손도장으로 이루어진 이 동굴벽화는 쇼베동굴벽화보다 무려 최대 2만여년 정도를 더 거슬러 올라가는 것으로 밝혀졌다.

4) 동물그림은 13종 이상에 420여 점으로 알려져 있다.

동굴은 지도에서 보듯 여러 개의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다.(그림6) 이 중 뛰어난 벽화작품이 그려져 있는 곳은 1번 힐레르 방(Hillaire Chamber)과 3번 캐터스 갤러리(cactus gallery), 그리고 4번 끝방이며 2번 캔들갤러리는 종유석이 장관인 공간이다.(그림7) 힐레르방은 앞에서 말한 네 마리의 말그림과 뿔을 맞대고 싸우는 두 마리의 코뿔소그림이 대표적이다. 캐터스 갤러리는 15마리의 곰그림이 특징적이며(그림8), 끝방에는 동굴사자와 코뿔소를 비롯한 수많은 동물군들이 12미터에 걸쳐 그려져 있다.(그림9)



6. 쇼베동굴의 주요한 공간들



7. 캔들갤러리. 종유석과 석순,석주가 아름답다.



8. 캐터스갤러리에 그려져 있는 곰은 동굴생활을 하였으며 여러 곳의 벽화에 곰의 앞발로 굵어댄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 있다.



9. 끝방에는 동굴사자들이 버팔로와 코뿔소들을 사냥하는 그림이 12미터에 걸쳐 그려져 있다.

동굴의 보존

장 끌로뜨를 위시한 프랑스인들은 이 동굴의 보존을 위해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복제동굴인 쇼베2(Chauvet2)를 만들기로 하였다. 이 유야 구구절절히 들었겠지만 10여 년 전인 1983년에 이미 라스코동굴을 폐쇄하고 라스코2를 만들었던 전력을 생각해보면 그들에게는 당연한 귀결이었다. 계획을 세울 때 그들은 전례 없이 거대한 복제동굴을 만들 야심을 드러냈다. 단순히 벽화만을 복제하는 것이 아니라 동굴 전체를 그 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라스코동굴과 비교해 보자면 라스코2를 만들 때는 10여년 전이라 기술력도 그때만 못했겠지만 그래도 98%이상의 일치율로 재현했다고 자부했던 그들이었다. 다만 복제한 그림은 일부에 국한하였고 그림이 그려져 있는 벽체만을 복제하였다. 심지어 라스코IV는 쇼베2보다 늦은 2016년 개관했음에도 그림이 있는 벽체만을 제작하여 현대식 전시실에 조형작품을 전시하듯 늘어놓았을 뿐이다.

그런데 쇼베2는 그림 뿐만 아니라 주변의 종유석과 석순을 비롯한 바닥의 물길까지도 재현한 것이다. 이러한 복제는 듣도 보도 못한 것이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로는 양에 차지 않았다는 것인지 아예 탐방로를 따로 만들어 동굴 바닥에는 발도 딛지 못하게 하고 탐방인원과 탐방시간까지 제한하였다.(그림10) 그들은 마치 쇼베2가 단순한 복제품이 아니라 새로 제작한 창작물이며 이 시대를 대표하는 문화유산인 것처럼 여기고 있었다. 제2, 제3, 제4의 라스코(Lascaux II, Lascaux III, Lascaux IV)와 같이 ‘쇼베동굴 전시관’이라거나, ‘동굴모형관’, 또는 ‘복제관’ 같은 말을 사용하지 않고 ‘제2의 쇼베동굴’(Chauvet II)이라 이름 짓는 데에서 그런 감정을 느꼈다면 과민한 것이었을까.



10. 쇼베2는 복제물임에도 탐방인원과 시간을 제한하고 해설사가 동행하며 동굴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피하는 등, 문화유산과 동등하게 대하고 있다.



11. 쇼베2의 외관. 높이를 낮추어 주변 숲의 나무들보다 솟아오르지 않도록 했으며 기둥은 역동성을 나타낸다고 한다. 아마 장구한 세월 끊임 없이 조금씩 생성되는 석회동굴의 상징을 말하는 것 같다.

쇼베2는 원래의 쇼베동굴에서 2km 떨어진 곳에 지어졌다. 2014년 그 모습을 드러냈으니 20년 걸려 지은 것이다.⁵⁾ (그림11) 그러나 실제 제작작업에 소요된 시간보다 준비하고 계획하고 모형을 만드는데 대부분의 시간이 할애되었다. 첫 3D모델이 나온 것이 2009년이었으니 준비초안을 마련하는 기간만 15년 걸린 셈이다. 그렇다고 그것으로 준비가 다 되었다고 한 것도 아니었다. 최초 모델을 바탕으로 어느 부분을 어떻게 선별할 것인가 하는데 대한 광물학적, 고생물학적, 예술적 관점의 분석을 거쳤다.(이러한 반복과정을 anamorphosis라고 한다.) 이리하여 첫 삽을 뜨게 된 때가 2012년 10월. 보존처리자나 지질학자, 조각가, 화가, 디자이너, 건축가처럼 처음 당연히 떠오르는 직종 외에도 지형학자처럼 다소 생소한 분야 뿐만 아니라 배경화가, 동굴예술전문가(parietal art specialist)라는 극히 생경한 직종까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500명 이상과 35개의 회사가 참여하였다.(이 가운데 직접 동굴작업에 참여한 인원은 210여명이었고 회사는

10여 개 정도이다.) 이리하여 2015년 4월 25일 바닥면적 3,000m², 벽과 천장 등을 합한 전체 면적 8,180m²에 달하는 쇼베2가 모습을 드러내게 된 것이다.⁶⁾ 쇼베2에 대한 그들의 자부심은 상상을 초월한다. 99% 이상의 사실성과 정밀함으로 제작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밀리미터단위까지 일치한다고도 한다. 지금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다시 나타나지 않을 것 같은 이 엄청난 창작물을 대하노라면 문화강국을 자부하며 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해 실효적인 노력과 투자를 아끼지 않는 그들의 근본정신에 대해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작업에 참여한 마리 바르디사(Marie Bardisa)의 말은 문화유산에 한 발 걸치고 사는 이들에게 금과옥조와도 같다, “보존은 언제나 연구에 우선한다.”⁷⁾

문화유산 담 Vol.6호에 이어집니다.



5) 같은 해 6월 22일 쇼베동굴은 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6) 원 쇼베동굴의 바닥면적은 8,500m²이고 전체면적은 7만m²이다
7) “Conservation always trumps research.”

Part. 09

문화유산 수리 이야기

“사라진 왕실 공예물의 제자리 찾기는 반환보다는 소유권 이양으로...”

(주)한웨이브리미티드 대표이사 (사)한복기술진흥원장 | 박 현 주

- 현 (주)한웨이브리미티드 대표이사
사단법인 한복기술진흥원 원장
- 문화재보존학과 박사수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역사문화학과 석사
졸업
인천대학교 대학원 의류학과 석사 수료
숙명여자대학교 사학과 졸업
- (재)소상공인시장진흥재단 역량강화
평가위원
국가브랜드위원회 한복부문 자문위원
국가이미지위원회 전통문화산업분과 위원
(사)한복단체총연합회 설립이사
안하공업전문대학 의류디자인과 외래교수
월간한복, 한복신문 발행인 겸 편집인
- 「중요 정전 영녕전 면장 방염교체 제작
사업보고서」, 문화재청
「중요 정전 영녕전 신주렴 교체 제작
사업보고서」, 문화재청
「창덕궁 인정전 커튼 복원 사업보고서」,
문화재청
덕수궁 석조전 커튼 복원 사업, 문화재청
대한민국 한복진흥원 건립 사업계획, 상주시
「화성행궁 화령전 운한각 주렴 및 의장물 교체
제작 사업보고서」, 수원시
「중요 정전 영녕전 면장 방염교체 제작
사업보고서」, 문화재청

그간에 줄곧 해 온 옛사람들이 살아온 흔적을 재현하는 일은 흑백에 색을 입히는 과정이었다. 텅 비어있
는 궁궐 전각들의 내부를 바라보면서 머릿속에는 이미 열두 폭의 모란병풍과 비단보로, 나비춧대와 서
안, 주렴이 쳐진 창문 아래 줄지어 놓인 문갑과 사방탁자. 벽에는 족자와 붓이며 두루마리 종이를 꽂아
놓은 책걸이가 걸려있는 내부가 펼쳐지고 있었다.

과거 왕실 가족들이 향유했던 일상의 물건들은 어디로 사라졌을까. 어떤 재료를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만들었을까. 어떻게 색을 내었을까. 실물이 없는 상황에서 의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문헌 자료를 찾
아보고 전시 도록도 수없이 살펴보면서 발품을 팔았다.

왕실공예 물목 가운데 가장 대표되는 재료가 비단이다. 비단은 전통 직물 가운데 최고급 소재로 다루어
져 왔다. 이런 연유로 왕실 가족 구성원들의 일상생활 전반에 사용되는 물품에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
부분이 비단을 소재로 사용하였다. 왕실은 왕과 왕비가 중심을 이룬 가족 공동체로 이들이 생전에 생활
하던 주거지는 궁궐이고, 사후에는 왕릉에 묻히고, 신위는 종묘에 봉안되고, 이들의 삶의 흔적은 기록되
어 실록과 의궤로 전해져 역사로 이어진다. 왕실의 의례에 소용된 제구(諸具)와 의장물(儀仗物) 그리고
복식류와 침장류 그리고 보자기와 심지어 벽을 도배하는 벽지까지도 비단을 사용하였다.

궁궐은 왕실과 관련된 의례의 공간이자 생활의 공간이다. 정전(正殿)과 편전(便殿)은 공적인 공간이
어서 내부가 주로 공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국왕의 공간과 신하의 공간으로 구분되어 이에 적당한 집기
로 배치되었다. 왕의 영역에는 어탑과 융상, 오봉병과 의장이 배설되고, 실내 바닥에는 신하들의 공
간으로 별문지의를 깔고, 그 위에 좌우로 나누어 서안과 방석을 배치하였다. 이 두 곳은 왕이 의례와 국정
을 운영하는 공적 공간으로 왕을 상징하는 의장물을 제외하고는 비단을 사용한 물품이 없으나, 침전(寢
殿)의 경우는 다르다.

침전은 왕과 왕비의 사적인 공간인 동시에 중궁전 의례를 행하는 공간으로 중궁의 정전, 즉 침전이었
다.¹⁾ 침전은 왕이 일상적인 사적 생활을 영위하는 공간으로, 왕족의 사생활 양식 전반을 볼 수 있는 영역
이다. 왕이 껌 밖으로 나갔을 때 거하는 행궁도 동일한 구성으로 갖추어졌다.

2015년 남한산성 행궁을 재현하면서 왕의 침전에 놓을 용문석(龍紋席)으로 만든 보료를 제작하는 과
정은 지금 생각해보도 뻔뻔한 작업이었다.

1) 창덕궁관리소, 「창덕궁 대조전·회정당 정비 및 활용계획 용역 결과보고서」, 2014



사진1. 남한산성 행궁 내 왕의 침전



사진2. 덕수궁 즉조당 고종 황제 침전

용문석은 왕만이 사용할 수 있는 듯자리로 최고급의 진상물이었다. 왕의 어탁에는 별문석지의(別紋席地衣) 위에 용문석을 부석(鋪)으로 깔았고, 용상에는 단석(簾)으로 깔았다. 궁궐 전각 바닥에는 문석지의를 등매석으로 깔아 사용하였다. 남한산성 행궁 침전에 전시해 놓은 용문석 보로는 당시 사업자문위원이었던 김삼대자(문화재전문위원)선생의 자문과 임애경(보성용문석 기능보유자)선생의 문석작업으로 처음으로 재현에 성공할 수 있었다. (사진1)

2019년에는 덕수궁 함령전 용평상에 용문석을 제작하였고, 2020년에는 고종 황제가 마지막까지 침전으로 기거하였던 덕수궁 즉조당 용평상에 채화석(彩花席)과 수복아자문(壽福亞字紋) 방식도 제작하였다. (사진2)

2010년 늦은 가을이었다. 대조전 회정당에 벽지를 교체해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다. 곧 겨울을 앞둔 창덕궁의 후원은 낙엽으로 나뭇잎을 다 소진해버린 뒤라 고목들만의 향연이었다. 당시 대조전 회정당 벽지를 철거하는 과정에 적의(翟衣)에 사용한 화본(畵本)이 나왔다는 기사를 본 지 한 달여 지난 즈음이었다. 궁궐 화공들이 밑그림으로 사용했던 평문양 화본은 왕비의 대례복인 적의에 그림이나 수를 놓을 때 밑그림으로 사용하던 것으로 지엄한 중궁의 옷본으로 사용했던 것을 벽지 초배지로 사용했을 것이라고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기에 내심 궁금하기도 하던 차였다.

대조전은 순조 34년(1834)에 영건되어 왕과 왕비의 침전으로 동편에 회랑으로 이어져 있는 회정당과 함께 내전의 중심을 이루고 있었다. 특히 창덕궁 대조전은 조선시대에 가장 많은 왕들이 기거한 곳이었기 때문에 왕실 가족들의 생활이 가장 잘 담겨 있는 공간이라 할 수 있다.

대조전은 1907년에 순종이 즉위한 후에 창덕궁으로 이어지면서 내전 영역에 많은 공사가 있었다. 1917년 창덕궁 침전 일곽에서 발생한 화재로 소실된 후, 일제강점기인 1920년 경복궁의 강녕전과 교태전의 부재를 뜯어서 지어서 임난 이후 재건할 당시의 모습과는 많은 차이가 있었다.²⁾ 일제강점기에는 순종이 통치자의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활과 학문의 공간만으로 사용하였다. 망국의 흔적은 궁궐 곳곳에서도 드러났다. 대조전과 회정당의 벽체 보와 창호는 한지가 아닌 신문지와 양지로 만든 벽지로 겹겹이 덧발라져 있었으며 이 과정에 당시 화공들이 화본으로 사용했던 적의 화본을 초배지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추측되었다. 바닥에는 별문지의 대신에 붉은색 서양식 카페트가 깔려 있었고, 창호에는 커튼이 쳐져 있었다. 그리고 내부에는 일본 양식의 테이블과 의자와 서양식 집기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내전의 침전으로 사용했던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최고급의 소재와 최고의 장인이 만들었을 왕실의 공예물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당시 유물은 이미 국립박물관으로 이관하였거나 유실되었을 것이나 상상했던 중국 내전의 일상은 전혀 느낄 수 없이 매캐한 먼지 냄새와 함께 망국의 흔적만 남아있었다.



사진3. 황색 박쥐부박 명주벽지를 제작하여 도배한 대조전 회정당 침전



사진4. 청색 박쥐부박 명주벽지를 제작하여 도배한 대조전 이발실

2) 김지현·이상해·윤민석, 창덕궁 침전일곽의 건축 형식 변천에 관한 연구, 大韓建築學會論文集 計劃系 제30권 제12호(통권314호) 2014

당시 대조전을 수리 보수하면서 내부 벽지와 바닥 카페트를 새롭게 정비하였다.

벽지 소재는 전통명주(상주 함창명주)를 사용하고, 색상은 흰색과 밝은 청색과 황금색으로 구분하였다. 왕의 침전에는 황색벽지를 도배하고, 내전은 밝은 청색으로 하고, 응접실은 흰색과 남색으로 도배하였다.

문양은 오륜박쥐문양을 문직하여 직조하는 것이 원형에 근접하는 것이었으나 당시 국내 전통명주 문직 기술이 사라진 형편이어서 부득이 부박으로 처리하기로 결정하였다. 먼저 15인치(36cm) 폭의 명주를 정련하여 염색한 후 실크벽지 생산 공장으로 이동하여 뒷면에 초배지를 접착하였다. 이를 다시 부박하는 공장으로 옮겨와 한 판 한 판 부박 과정을 거쳐 벽지를 완성하였다.

내년부터 내셔널지오그래픽 잡지 인쇄물을 더 이상 출간하지 않는다는 소식과 함께 올해 3월호에 게재된 「제자리를 찾아가는 유물들」(글/앤드루 커리, 사진/리처드 반즈)을 읽고, 그동안 왕실 유물을 보수하는 과정에서 경험했던 일련의 상황들을 반추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

“약탈한 유물을 반환한다고 박물관이 문을 닫는 것은 아니다. 이를 통해 오히려 새로운 기회가 생긴다.”는 내용의 기사였다. 이 기사는 1884년부터 1919년까지 독일의 식민 지배를 받았던 카메룬의 은조야 바뭉왕조의 상징물인 ‘구슬옥좌’에 관한 기사를 시작으로 하여 근대 제국주의가 몰락하고, 식민지였던 국가들의 독립과 신생국의 탄생으로 과거 약탈해간 사라진 유물들의 제자리 찾기가 주된 줄거리이다. 그리고 세계 유수의 대형박물관이 과거 침략을 통한 전리품으로 약탈한 각국의 유물들에 대한 반환 요구에 직면하게 되면서 종전의 입장에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많은 변수에 대해 다루고 있다. 이 과정에 2022년도에는 독일이 자국에 있던 문화재 수백 점에 대한 소유권을 나이지리아박물관위원회에 양도했고, 프랑스가 유물 26점을 서아프리카 국가인 나이지리아와 베냉에 반환했으며, 미국 뉴욕주의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은 조각상 수십 점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약정을 체결했다. 이런 변화를 계기로 박물관과 문화재의 원소유주인 지역사회와 국가가 서로 협력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기를 희망한다는 것으로 이 기사는 마무리하고 있다.

이 기사에서 몇 가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에서 지난해 프랑스 케브랑리박물관이 반환한 유물을 베냉 코토누 대통령 관저에서 4개월간 전시하는 동안 20만 명의 베냉인들이 줄지어 관람했다는 대목이었다.(사진5) 이는 아프리카인들이 자국의 역사나 문화에 무관심하다는 과거의 통념을 깬 것이며, 그들은 과거 조상들의 유물을 통해 수세기 동안 이어 온 그들의 오랜 역사와 전통을 찾으려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근대 제국주의로 경제적 기반을 선점한 일부 선진국들의 보상적 지원에서 벗어나 새로운 세계 질서가 시작되고 있는 느낌이었다.



²⁾ 사진5. 베냉 코토누 대통령궁 전시



³⁾ 사진6. 독일 신베를린박물관에 전시된 네페르티티 이집트 여왕 흉상

그리고 21세기에 들어 문화재에 대한 정책 조류가 문화재의 보존과 계승에서 활용으로 전환되고 있다. 독일 신베를린박물관에 전시된 네페르티티 이집트 왕비의 흉상은 1912년 독일 발굴단에 의해 발견된 이후 이집트의 끊임없는 반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독일에 남아있고, 매년 이를 관람하기 위해 수십만 명의 관광객들이 방문한다. 이에 대해 독일에서는 과학적 분석 결과 이 유물이 이집트로 반환되는 과정에 훼손될 것이란 이유를 설명하고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재화 획득의 방편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진6) 그러나 반드시 유물이 이집트로 반환된다고 그 가치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란 생각이다. 유물의 물적 이동이 아니더라도 상호 간에 유물에 대한 자료와 정보를 공유할 수만 있다면 유물의 활용 가치는 충분히 유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간의 생각을 정리해 보게 되었다.

3) 「제자리를 찾아가는 유물들」(글/앤드루 커리, 사진/리처드 반즈)

4) 「제자리를 찾아가는 유물들」(글/앤드루 커리, 사진/리처드 반즈)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현재에도 비어있는 우리나라 궁궐전각들도 이러한 과정에 놓여 있다. 과거 왕실 가족들이 일상에서 사용했던 생활용품들은 구한말 조선의 패망과 함께 패전국의 전리품으로 세계 각지로 흩어졌다. 1901년부터 1910년까지는 506년을 버텨온 조선왕조가 대한제국(大韓帝國)으로 국호를 바꾸면서까지 근대적 전제군주제로 변화를 시도하였으나 결국 일본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 15세기 부터 시작된 유럽 열강들의 근대적 식민주의는 1914년에 정점에 달했다. 이 시기 식민지 문화재는 합법적인 전리품으로 방대한 규모로 수집되어 특화된 그들만의 문화로 향유되었다. (사진7)

문화재의 국외 반출은 1866년 병인양요, 1871년 신미양요, 1894년 청일전쟁, 1904년 러일전쟁, 1895년 시작되어 36년간의 일제강점기, 그리고 6.25 한국전쟁 종전 후 3년간의 미군정 시기에 이루어졌다. 이 시기에 수많은 왕실 유물들이 국외로 빠져나갔다. 장인들의 기술로 만들어진 으뜸의 공예물인 왕실 유물은 기록에는 남아있으나 국내에 소장된 것은 일부에 불과하다. 최근 국외문화재환수위원회를 통해 유물에 대한 일부 전수조사가 이루어지고, 해외 반출문화재 가운데 왕실공예물의 존재 여부가 가시화되고 있기는 하나 현황을 파악하기에는 극히 제한적이다.

국외로 반출된 우리나라 문화재는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해외에 소재하는 우리 문화재는 총 20개국 160,342점에 이른다. 이 중에는 국내로 환수된 것들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2011년 프랑스로부터 임대 형식으로 환수한 『외규장각 의궤』(사진8)와 일본에서 같은 해에 돌려받은 『조선왕실 의궤』가 있다. 이는 사적으로 가치가 큰 것으로 주로 미국과 일본에 집중되고, 네덜란드와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유럽 몇몇 나라에 한정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제는 국외 반출 문화재가 과거 비도덕적인 방법으로 유출되었다는 인식을 전환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한다. 패전국의 문화재는 승전국에서 가장 먼저 획득하는 전리품이었다. 재화적 가치가 있는 그 나라의 보물은 패전 국민과 마찬가지로 유용한 전리품으로 간주한 것은 오래전부터 규명되어 왔다.

사적에서 발굴되거나 이관되는 유물은 대부분이 국공립박물관으로 이관되어 수창고에 보관된다. 반환되거나 환수되는 문화재도 마찬가지로 과정을 거친다. 최근에 들어 국외문화재환수위원회가 많은 비용을 지불하면서 문화재를 환수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국공립박물관 수창고가 이미 기존의 유물들로 포화 상태라고 한다. 국내에서 발굴되는 유물을 수창하기에도 힘들 지경에 처해 있으며 이를 보존하고 처리하는데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이 태부족인 실정이라고 한다. 최근 국외소재문화재에 대한 정보화 사업도 많이 추진되고, 각 박물관과 문화재연구소에서 유물을 레이저 스캐너를 활용해 3차원 모형으로 복원하여 전시하는 등 첨단 과학기술로 유물에 대한 정보화가 지속되고 있다. 그리고 우리 문화재가 다수 소장된 일부 해당 국가들은 문화재 관리운영이 우리보다 월등히 앞서가고 있어 우리의 실정을 고려해서 유물의 환수방법보다는 권리를 이양받아 소유권을 확보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이다.



사진7. 19세기 전형적인 백과사전형 박물관인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부설 피트리버스 박물관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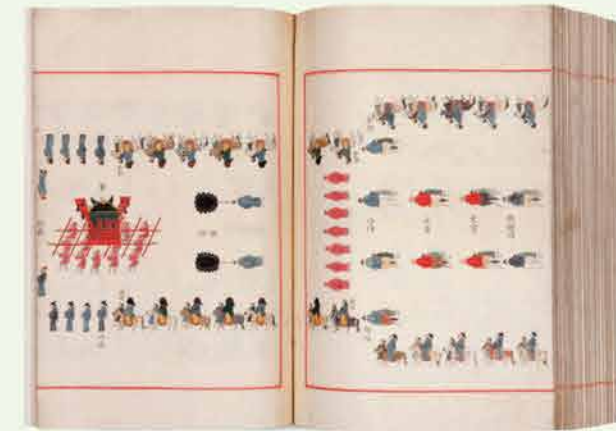


사진8. 2011년 프랑스로부터 임대 형식으로 환수한 『외규장각 의궤』 『숙종인현왕후가례도감의궤』⁵⁾

국외소재 유물이 대부분인 왕실 관련 유물은 천연소재로 만들어진 정교한 공예품이어서 보존처리나 복원화 과정에 첨단화된 기술과 관리가 요구되는 것으로 예외는 아니라는 생각이다. 2011년 문화재보호법에 문화재 활용정책이 추가되면서 건축물에 집중되어 지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왕실 유물들에 대한 재정비의 기회가 마련되기는 하였으나 현실적으로는 갈 길이 멀어 보인다. 해외 각지에 흩어져 있는 국외소재 유물이 복원 전문가와 과학적 기술로 복원되고, 이는 다시 복제품으로 복제되어 관람객에게 진품과 다름없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진정한 활용의 가치가 아닐까 한다.

앞으로는 원소유주와 해당 국가 간에 ‘반환’이나 ‘환수’에 의한 유물의 이동이 아닌 소유권 이전이나 과학적인 정보와 활용 가치를 구현하는 방향으로 전환해나가야 한다는 흐름에 공감한다.



남한산성 행궁 채화문보료(내전)



남한산성 행궁 웅문석보료(침전)



경복궁 근정전 의장물 수리 (2019)



경기전 의장물 수리 (2016)

5) 『숙종인현왕후가례도감의궤』 1681년(숙종7), 1책, 국립중앙박물관 출처

안동 병산서원

관람시간: 하절기 오전 9시~오후 6시 | 동절기 오전 9시~오후 5시
 향사일: 음력 3월, 9월 초정일(初丁日)
 관람료: 무료, 주차비: 무료(서원 동쪽 주차장)
 문의: 054-858-592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병산길 386
 안동시관광안내소 사전문의 | www.tourandong.com

Part. 10

문화유산 산책



새그무레한 배롱꽃이 한창인, 안동 병산서원

진홍빛의 열렬한 구애도 오래 남지 않았다. 매년 여름부터 초가을까지 병산서원을 아름답게 물들이는 배롱나무꽃이 제철이다. 내년을 기약한 봄꽃과의 작별이 아쉬운 이에게 인자한 서원과 배롱꽃의 조화가 무르익은 초가을의 풍경을 소개한다. 안동 하회마을에서 포장된 도로를 따라 걷다 보면, 강변을 사이한 산책로에 도달한다. 낙동강변의 쾌청한 하늘과 잔물결을 감상하며 계속 걸어가면 절기의 꽃이 만발한 웅골찬 자태의 병산서원이 모습을 드러낸다. 병산서원은 고려 중기 풍산류씨의 사학(私學)인 풍악서당(風岳書堂)을 모체로 비롯되었다. 풍산읍에 위치한 서당은 지방 유림의 자제가 한데 모여 학문에 매진하던 곳이다.

풍악서당은 고려 말(공민왕) 홍건적의 난으로 왕의 행차가 지나던 때, 공부에 열중하는 유생들을 본 왕이 크게 감동하여 많은 서책과 사패지(賜牌地)를 주고 격려했다는 일화가 있다. 1575년(선조 8) 서애(西厓) 류성룡(柳成龍, 1542~1607)에 의해 안동시 풍천면으로 옮겨진 뒤 '병산서원'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오늘날까지 불리게 되었다.

이후 우복 정경세, 창석 이준 등 문인들이 류성룡 선생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존덕사를 창건(1614년)하고, 그의 위판을 모셔 제학과 제향 기능을 갖춘 서원을 완성해 나갔다. 1662년(현종 3) 병산서원은 류성룡의 셋째 아들 수암(修巖) 류진(柳鎭, 1582~1635)의 위패를 종향하였고, 1863년(철종 14) '병산'이라는 임금의 사액을 받았다. 지방 교육의 일익을 담당하고 수많은 학자를 배출했으며, 1868(고종 5) 흥선대원군의 서원 철폐령에도 여전히 존속한 47개의 서원 가운데 하나로 알려져 있다.

• 성리학의 요지, 만대루

해 질 무렵까지 바라봐도 지루하지 않은 풍경. 만대루(晩對樓)는 당나라 시인 두보의 시구절 '취병의만대(翠屏宜晚對, 푸른 병풍처럼 둘러쳐진 산수는 늦을 녀 마주 대할 만 하다)'에서 착안한 이름이다. 정면 7칸, 측면 2칸의 만대루는 시야를 방해하는 요소가 존재하지 않아 시원하게 드러난 풍산의 절경을 한눈에 담아낸다. 다듬지 않은 목재와 자연석, 통나무를 깎아 만든 투박한 계단이 아름다운 누마루는 유생들이 모여 우주 질서와 자연 순환을 탐구하던 성리학을 되새기고 열정을 토로하던 공간이다. 기둥과 지붕이 도드라져 보이는 만대루의 건축은 이렇듯 절제와 여백의미가 수려한 선비의 기질과 닮아있다.

TIP.

병산서원은 1978년 3월 31일 사적 제260호로 지정되었고, 2019년 7월 전국 8개 서원과 함께 '한국의 서원'이라는 이름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류성룡의 문집을 비롯하여 각종 문헌 1,000여 종 3,000여 책이 소장되어 있다.



• 선비 정신을 기리는 사당, 존덕사

'학문과 덕행을 높이 우러른다'는 뜻의 존덕사(尊德祠)는 류성룡을 주벽으로 제향, 류진을 동벽으로 신주를 모시고 있다. 1613년 창건된 존덕사는 정면 3칸, 측면 2칸의 단층맞배 기와집에 겹처마 구조로 화려함을 배제한 솟을대문으로 지어졌다. 태극 문양과 붉은색을 칠해 부정한 것을 멀리하고 있으며, 출입문 돌기 등에 류성룡의 일생을 팔괘로 새긴 것이 특징이다. 음력 3월과 9월의 첫째 정일(丁日) 향사 시에만 개방하는 존덕사는 이맘때면 수많은 배롱나무가 꽃그늘을 드리운다. 전사청 주변의 400년 된 보호수와 함께 번듯한 매무새를 자랑한다.



• 산수의 경치가 빼어난, 입교당

강학 공간의 중심부인 입교당(立敎堂)은 높은 석축단 위 남향에 위치한다. 유생들이 학문을 닦던 곳이자 스승이 기거하는 서원의 핵심 공간이다. 입교당이라는 명칭은 『小學』 立敎편에서 '하늘로 부여받은 착한 본성에 따라 가르침을 바르게 세운다'는 말에서 인용했다. 성현의 가르침을 받아 선비로서의 사명을 공고히 하자는 의미를 지닌다. 신창 유생이 사용하는 입교당의 서쪽 온돌방인 경의재 앞은 비대청 구조의 건축미가 압권이다. 문살의 수와 퇴(退, 퇴마루)의 개방이 모두 다른 한국 특유의 전통 건축 방식을 반영했다.



3년 만에 다시 열리는 문화유산 수리 현장

목조, 성곽, 고분 등 전국 문화유산 수리 현장 14개소 6월부터 순차 공개

문화재청은「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4(문화재수리 현장의 공개)에 따라 지난 2014년부터 문화유산 수리현장 중 ‘중점 공개’ 대상을 선정하여 해마다 공개해 오다가 2020년 코로나19로 중단한 이후 3년만에 문화유산 수리 현장 공개를 재개한다. 문화재청은 직접 방문하지 못한 국민들도 문화유산의 수리 과정을 관람할 수 있도록 현장의 주요 수리 과정 영상을 촬영하여 추후 문화재청이나 해당 지자체의 온라인 채널에 공개할 계획이다.

(2023.5.31. 문화재청 보도자료 참고)

2023년 문화유산 수리 현장 중점 공개 목록

• 대상 : 서울 문묘 및 성균관 등 14개소

순번	지역	문화유산명	공개사업 내용	공개일정		예약방법 및 문의 (전화/이메일 등)
				기간	공개시간	
1	서울	서울 문묘 및 성균관 <대성전·동무·서무·삼문·명륜당> (보물)	대성전 지붕 보수	’23.9~12월	매주 목요일 (14:00~14:40)	02-2148-1842 (종로구청 문화과)
2	인천	강화 삼랑성 (사적)	성곽 보수	’23.7~11월	매주 목요일 (14:00~15:00)	032-930-3897 (강화군청 문화재과)
3	인천	인천 계양산성 (사적)	발굴지 정비	’23.8~12월	매주 목요일 (14:00~15:00)	032-450-8314 (계양구청 문화체육관광과)
4	충남	논산 노강서원 강당 (보물)	강당 해체보수	’23.6~12월	매월 셋째주 목요일(2회) (10:00~11:00, 14:00~15:00)	041-746-5413 (논산시청 문화예술과)
5	충남	서산 해미읍성 (사적)	제2포루 보수	’23.7~9월	매주 목요일 (14:00~15:00)	041-660-3099 (서산시청 문화예술과)
6	충남	서산 명종대왕 태실 및 비 (보물)	태실 및 비 해체보수 /보존처리	’23.7~10월	매월 셋째주 목요일 (14:00~15:00)	041-660-2247 (서산시청 문화예술과)
7	충북	증평 추성산성 (사적)	성벽 정비	’23.6~9월	매월 첫째주 화요일 (17:00~17:30)	밴드 접수 https://band.us/ band/91011273 043-835-4133 (증평군청 문화관광과)
8	전북	정읍 고사부리성 (사적)	성벽 복원	’23.6~8월	넷째주 금요일 (14:00~15:00)	063-539-6933 (정읍시청 동학문화재과)
9	전남	여수 진남관 (국보)	진남관 해체보수	(지속)~’24.4월	매월 둘째·넷째주 토요일(2회) (10:00~10:30, 14:00~14:30)	여수시 OK통합예약시스템 접수 www.yeosu.go.kr/newok 061-659-4757 (여주시청 문화유산과)
10	경북	안동 조탑리 오층전탑 (보물)	전탑 해체보수	’23.9~11월	매월 마지막 목요일 (13:00~14:00)	이메일 접수 heeya4u@kofta.org 054-857-9711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11	경북	예천 용문사 대장전과 윤장대 (국보)	대장전 지붕 해체보수	’23.8~11월	매월 둘째·넷째주 목요일 (14:00~15:00)	이메일 접수 iheeee@korea.kr 054-650-6392 (예천군청 문화관광과)
12	대구	대구 구암동 고분군 (사적)	봉분복원 (56·58호분)	’23.7.5.~11월	매주 화요일 (14:00~15:00)	053-665-2354 (대구 북구청 관광과)
13	경남	하동 쌍계사 진감선사탑비 (국보)	탑비 해체보수	’23.6월 마지막주~9월 2주	매주 목요일 (14:00~15:00)	055-880-2370 (하동군청 문화관광과)
14	경남	양산 신흥사 대광전 (보물)	대광전 해체보수	’23.6~’24.12월	매월 마지막 목요일 (14:00~15:00)	055-392-3552 (양산시청 문화관광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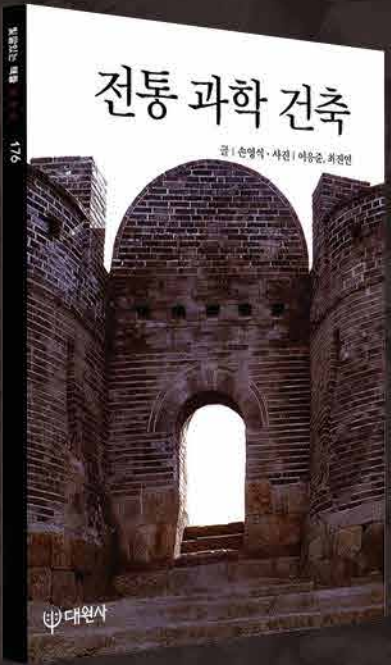
전통 과학 건축
빛깔있는 책들 176

선조들은 건물 하나하나에도 오랜 세월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축적해 온 과학적 사고를 실용적인 생활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대원사가 선보인 '빛깔있는 책들'의 176번째 시리즈 《전통 과학 건축》은 우리 선조들이 이룩해 놓은 생활 과학 건축물인 봉수대와 석빙고, 천문대를 주 대상으로 하고 그 밖에 고분, 교량, 성곽 등을 건축적인 관점에서 소개한다. 각 건축물의 역사와 구조, 종류에 대한 지식을 아름다운 사진들과 함께 소개하고 있다.

저자 손영식 공학박사는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한양대학교 대학원에서 학위를 취득했다. 문화재관리국 문화재 보수과장을 거쳐 현재 국립중앙박물관 건립사무국 과장으로 활동 중이다. 《한국 성곽의 연구》, 《옛다리》를 출간하고, 공저 《북한의 문화 유산》와 각종 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

건축적 관점으로 분석한
‘선조들의 K-과학’

대표적인 전통 과학 건축물로, 생활하는 가옥인 한옥을 비롯한 성곽(城郭), 고분(古墳), 교량(橋梁), 봉수대(烽燧臺), 석빙고(石氷庫), 천문대(天文臺) 등 실로 다양한 종류와 형식이다.



글: 손영식(사진: 이응준, 최진연)
출판: 대원사
발행일: 1995년 11월 20일
가격: 8,500원

문화유산 서가

문화유산 수리분야 연구 최신 간행물

	책명	2022년도 목조문화재 가해 생물종 조사 결과보고서
	발행처	국립문화재연구원
	발행일	2023.05
	비고	"목조문화재 가해 생물종 조사 결과보고서 국보, 보물, 국가민속문화재"
	책명	한국의 사찰 문화재
	발행처	문화재청
	발행일	2023.03
	비고	2022 전국 사찰 불단 일제조사(충남)
	책명	2021년도 국가등록문화재 등록조사보고서
	발행처	문화재청
	발행일	2023.03
	비고	국가등록문화재를 조사하여 동산과 건조물(부동산)으로 나누어 정리하여 수록
	책명	제3차년도 역사문화자원 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 조사
	발행처	문화재청
	발행일	2023.07
	비고	제3차년도 역사문화자원 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역사문화자원 관리, 활용정책의 동향 및 추진실태 제3장 역사문화자원 관리를 위한 법제화 추진 방향 제4장 역사문화자원 활용을 위한 사업 추진전략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책명	국보 부석사 조사당 벽화 보존 : 문헌조사 편
	발행처	문화재보존과학센터
	발행일	2022
	비고	국립문화재연구원 문화재보존과학센터에서 추진 중인 「부석사 조사당 벽화의 과학적 조사 및 보존처리」 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된 연구성과물 국보 부석사 조사당 벽화의 수리·보존이력에 대한 문헌조사 자료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보고서이며,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박물관문서>에서 부석사 조사당 벽화와 관련된 문건을 선별하여 국역화한 내용을 수록
	책명	전통건축벽체 재료 구성성분 분석보고서
	발행처	국립문화재연구원
	발행일	2023.06
	비고	전통건축 니장기술연구의 다섯 번째 성과물 건축문화유산 해체수리현장을 조사하며 수집해온 벽체재료를 과학적으로 분석한 내용을 담은 벽체 재료의 구성성분 분석을 통해 흙재료의 입자크기, 분포, 내부구조, 유기물유무 등을 확인

문화재수리업자등 지역별 등록현황

2023년 8월 31일 기준 (단위: 업체수)

지역	종합 문화재 수리업	전문문화재수리업									문화재 실측 설계업	문화재 감리업	계
		보수 단청업	조경업	보존 과학업	식물 보호	단청 공사업	목 공사업	석 공사업	번와 공사업	미장 공사업	온돌 공사업		
서울	15	12	12	-	2	1	-	-	-	-	11	11	64
부산	-	-	1	2	1	-	-	1	-	-	-	-	5
대구	-	1	-	-	-	-	-	-	-	-	2	-	3
인천	4	-	-	-	-	-	-	-	-	-	-	-	4
광주	-	-	-	-	-	-	-	-	-	-	1	-	1
대전	1	-	-	-	-	-	-	-	-	-	-	-	1
울산	-	-	-	2	-	-	-	-	-	-	-	-	2
세종	-	1	-	-	-	-	-	-	-	-	-	-	1
경기	30	14	9	5	1	-	2	-	1	-	11	6	79
강원	14	-	2	7	-	-	-	-	-	-	4	4	31
충북	15	-	4	2	-	-	-	-	-	-	3	3	27
충남	37	20	10	5	-	-	2	-	-	-	9	8	91
전북	27	2	8	2	1	1	-	-	-	-	5	5	51
전남	28	5	8	11	2	-	-	-	-	-	7	7	68
경북	74	17	8	13	-	-	-	-	-	-	17	11	140
경남	29	3	5	5	1	-	-	-	-	-	5	4	52
제주	8	7	-	15	-	-	1	-	-	-	1	-	32
합계	282	82	67	69	8	2	5	1	1	0	76	59	652



VOL. 05 | AUTUMN 2023
QUARTERLY MAGAZINE